



에이미 장 양이 호바트 초등학교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155컬레의 운동화를 나눠준 후, 감사의 환호성을 지르는 어린이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 있다.

## 어린이들에게 “꿈과 소망” 심어줄래요

유스호프서밋, 운동화로 사랑 실천

비영리단체 유스호프서밋의 대표인 에이미 장(트로이고교 9학년) 양이 지난 3일 오후 엘에이 호바트 초등학교에서 이 학교 애프터스쿨 프로그램인 엘에이 베스트에 다니는 저소득층 학생 155명에게 운동화를 기부했다. 이 행사 바로 전 주에는 풀러튼 소재 골든힐초등학교 학생 17명에게도 운동화를 나눠줬다.

이 자리에는 장 양과 함께 유스호프서밋의 알렉스 유 디렉터, 장 양의 가족이 함께 했다. 이들은 모두 감사한인교회(김영길 목사)에 출석하고 있다. 운동화를 판매하는 ‘해피테라사퓌웨어’의 스타 박 사장도

필요한 운동화를 직접 배달하며 분주한 손길을 거들었다.

이날 학교 강당을 꽉 메운 어린 학생들은 기쁨에 들뜬 눈을 반짝거리며 자기 이름이 호명될 때마다 환호성을 지르며 앞으로 달려 나갔다.

한편, 장 양이 유스호프서밋을 설립하게 된 계기는 지난해 10대 소녀인 말랄라 유사프자이가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것에 큰 도전을 받았기 때문이다.

유스호프서밋은 자선 모금 행사를 통해 모아진 기금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운동화를 나눠주는 선행을 펼쳐가고 있다.

이영인 기자

## 4개월째 北 억류된 임현수 목사 구명은?

캐나다 정부, 북한과 접촉 중... KPCA도 교단 차원에서 촉구

지난 1월 31일 이후 4개월 이상 북한에 억류된 채 모든 연락이 두절된 임현수 목사(토론토 큰빛교회)의 구명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최근 큰빛교회의 노희송 차기 담임목사는 이 문제와 관련해 캐나다 보수당의 상임 정책고문이며 전 통상부 장관인 스톡웨이 데이 위인과 면담했다고 밝혔다. 또 그는 한국을 방문해 이영훈 목사(여의도순복음교회), 이동원 목사(지구촌교회 원로), 고명진 목사(수원중앙침례교회), 박준하 목사(장천감리교회 원로), 서정인 대표(한국 컴패션), 박성민 목사(한국 CCC 대표), 김하중 장로(전 통일부 장관) 등을 만났다고 전했다.

노 목사는 5월 31일 전한 한국 방문 보고에서 “한국에 영향력이 있는 많은 목사님들과 선교 단체장들, 또한 그동안 북한 사역을 감당하신 분들과 계속해서 대화를 나누며 임 목사님을 위하여 실제로 도울 수 있는 길을 모색하며 의논하는 시간도 가졌다”고 전했다. 특히 한국 방문 기

간 중 주일에는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내 이희호 여사를 장천감리교회에서 만났다고 했다.

그는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뜻을 다 알 수 없었지만 목사님과 우리 교회를 통하여 분명히 역사하고 계시는 그분을 바라보며 기대감이 생겼다”며 “우리가 계속해서 마음을 모으는 가운데 기도의 줄을 놓지 않을 때 반드시 곧 놀라운 일들을 기쁨으로 맞을 것이며 절묘하신 하나님의 뜻은 드러나게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노 목사를 비롯한 이 교회 대표단은 이 문제로 주한 캐나다 영사들과도 만났으며 최근의 상황들에 관해 논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의소리(VOA) 방송도 6월 6일 “북한에 억류 중인 임현수 목사를 위해 캐나다 정부가 직접 북한 당국과 접촉하고 있다고 캐나다의 한 소식통이 말했다”고 보도했다. VOA는 “북한에 외교공관이 없는 캐나다는 앞서 임 목사 석방을 위해 평양에 대사관을 두고 있는 스웨덴 정부를 통해 북한과 접촉했다. 하지만 북한 측이

직접 캐나다와 대화하고 싶다는 입장을 밝힌 뒤 접촉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하고 “캐나다 관리는 이 자리에서 임 목사 석방을 위해 북한 측과 적극적으로 접촉하고 있다면서, 자세한 내용은 기밀이라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고 이 소식통은 전했다”고 했다.

이 교회가 속한 해외한인장로회(KPCA)도 지난 3월 12일 당시 총회장이던 노진걸 목사(홀러튼장로교회) 명의로 유엔 주재 북한 대사관에 석방 촉구 공문을 보낸 바 있다. 이 공문은 임 목사의 헌신적인 북한 사역을 설명한 후 “이런 일(억류)이 일어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특히 그의 평소 건강 상태를 우려하며 북한 당국의 선처를 호소한다”고 밝혔다. 또 “임 목사 억류 조치는 민간 차원에서 활발하게 일어난 인도적인 구호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며 또 북한 당국이 임 목사를 억류하고 있는 동안 전세계 인도적인 구호 단체들과 교회들이 예의주시하며 그의 무사 귀환을 지켜 볼 것이다”라고 전하고 있다. 김준형 기자

## CCM 저작권 일대 혼란 한인교회 어떻게 대처하나

최근 엘로힘 EPF라는 단체가 미주 한인교회들을 대상으로 CCM 곡에 대한 저작권 라이선스 비용을 6월 30일까지 지불하라는 공문을 대거 발송하면서 저작권에 대한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일단 한인교회 내에 CCM 저작권에 대한 인식 자체가 낮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다.

저작권은 예술이나 문학, 음악 등 창작물의 저작자가 갖게 되는 독점적 권리다. 따라서 이용자가 이 창작물을 사용, 배포하기 위해서는 저작자로부터 반드시 권리를 구매해야 한다.

방법 1. 면제 조항 내에서 사용하거나 찬송가만 부르거나

미국을 포함한 대다수 국가의 경우 종교적 목적의 경우에 저작권이 면제된다. 즉, 향간의 오해처럼 찬양을 하는데 돈을 내란 소리는 아닌 것이다. 예를 들면, 공적 예배에서는 저작권에 구애받

지 않고 자유롭게 곡을 부를 수 있다. 그러나 이 면제 조항은 정확히 예배 내에서만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회중 찬양과 달리 성가대의 경우는 연습부터 실제 연주까지 대원 한 명 한 명이 모두 악보를 구매해서 사용해야 한다. 악보 하나를 구매한 후 복사해서 사용하면 당연히 불법이다. 또 예배를 위해 찬양을 부를 때는 자유지만 찬양을 부르는 대목이 포함된 채로 DVD나 CD를 만들거나 인터넷 방송을 내보내면, 이것은 배포에 해당하기 때문에 저작권에 저촉된다.

한국은 회중 찬양의 경우엔 곡의 가사까지 대형 스크린에 띄울 수 있다. 그러나 찬양 후에 이 가사가 컴퓨터에 저장돼 있어선 안 된다. 미국의 경우는, 케이스마다 다르지만, 이마저도 까다로운 교회가 저작권 라이선스를 취득했거나 그에 합당한 구매 행위를 했을 경우에만 허가된다.

→ 4면에 계속

ASO 나라정비 타이어 대리점  
**나라오토먼트**  
 유럽차전문점  
 SMOG CHECK  
**323.734.4881** | 월~금: 8am~6pm / 토: 8am~5pm | 1201 S.Western Ave, LA 웨스트와 12가  
 범퍼·도어·바디복원·무료견적·Rent Car  
**GOOD YEAR**

최상의 호스피스 서비스를 사랑으로 제공합니다.  
 의사, 간호사, 간호보조사, 소셜워커, 성직자, 자원봉사자 등이 직접 방문하여 돌봐드립니다.  
 정부인증기관으로 환자분에게 금전적 부담이 없습니다.  
 24시간 대기 서비스 제공  
**시에라 호스피스 케어** 박영심 간호부장  
 www.sierra-hospice.com Tel: (213) 380-1100 Cell: (213) 700-6989

**미주 한인기독교 총 연합회(KCCA)**  
 이민 목회현장에서 복음사역을 위해 수고하시며 나아가 교회연합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봉사해 주시는 모든 회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아래와 같이 제 17차 정기총회를 소집하오니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수신 : 전각교단장, 증경회장단, 각교협회장과 증경회장, 공인된 선교단체장  
 제목 : 제17회 미주 기독교 총 연합회 정기총회 전

1. 일 시 : 2015년 7월 6일(월) 5:00pm~8일(수) 10:00 am  
 2. 장 소 : Atlanta 잔스크리교회 (이승훈 목사 사무) 7830 McGinnis Ferry Rd, Suwanee, GA 30024 ☎ 770)623-0004  
 3. 등록비 : \$100 (당일지참)  
 4. 참 조 : 등록처: 최낙신 목사(404-488-6868) 박형우 목사(704-281-0080) 비행기 스케줄 보낼곳 E.mail: hopeppaul@gmail.com  
 5. 등록접수마감  
 1. 교회협의회의 의무금 및 임원 의무금을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항공비는 본인부담이며 체제비는 2박3일간 본 준비위원회에서 부담합니다.  
 3. 등록한 분에 한하여 대의원 권을 부여합니다.  
 4. 임원회 모임은 2015년 7월6일 오후 5시에 있습니다.

**미주 한인기독교 총 연합회 총회**  
 K.C.C.A 미주한인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한기홍 목사  
 상임회장 김동욱 목사, 서기 심평중 목사

문의처: 대회준비위원장 최낙신 목사(수석공동회장) ☎ 404)488-6868, 678)482-1400





남가주성시교회에서 “그리스도의 장자권과 하나님 자녀의 권세 누리” 세미나가 열렸다.

## 믿음은 선포! 장자의 권세로 선포하라

### 이영환 목사 세미나 남가주성시교회에서 개최

한국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는, 이영환 목사(한밭제일교회)의 “그리스도의 장자권과 하나님 자녀의 권세 누리” 세미나가 지난 달 애틀랜타에 이어 남가주에서도 6월 3일부터 6일까지 남가주성시교회(안병준 목사)에서 열렸다. 뉴저지 지역 세미나는 6월 12일부터 14일로 잡혀 있는 상황이다.

이 세미나는 한밭제일교회를 개최해 30년 이상 시무하며 대전 지역의 가장 대표적인 대형교회로 성장시킨 이영환 목사가 은퇴를 앞두고 평신도 훈련 교재를 구상하는 가운데 착안한 내용에 기초하고 있다.

그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의 말씀 선포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장면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신 권세와 그 복에 관해 연구하게 됐다. 본격적으로 세미나가 시작된 지 14개월 만에 5,300명의 목회자와 24개국 선교사들이 세미나에 참석했고 평신도, 청소년들까지 이 세미나를 다녀갔다.

성시교회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이 목사는 자신의 간증을 시작했다. 낮은 자존감과 열등 의식으로 사람 얼굴도 제대로 못 보던 그가 신학생 시절 교내 설교 대회에서 1등을 해



강사 이영환 목사

보겠다고 선포한 이후 정말 1등을 하게 되면서 인생이 바뀌게 된다. 그 일이 계기가 되어 전도사로서 담임 사역을 시작하게 됐고 ‘사람 없는 시골에서 30명이면 족하다’던 그의 목회 사역이 오늘에 이르게 됐다.

그는 “믿음은 곧 선포”라고 강조한 후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니 그대로 되고 그것이 보시기에 좋았다. 이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선포하면 이루어진다”고 말했다. 예수님도 누가복음 10장 5-6절에서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

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고 하신다. 이 목사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집이 평안하길 기도하라’ 하지 않으시고 ‘평안하라’고 선포하길 원하신다”면서 “성경은 창세기 1장의 선포로 시작돼 요한계시록 22장 21절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라는 선포로 마친다”고 정리했다.

그는 “우리가 선포하기에 앞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장자의 신분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아래 있는 장자만이 살아 남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아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장자”라고 설명했다. 그는 “장자권은 이 땅이 아닌 하늘나라의 상속권이다. 이 상속권은 세상의 명예나 물질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면 세상적인 복도 보너스로 주신다”고 덧붙였다. 그는 세미나 내내 어떻게 하면 장자권을 누릴 수 있는지, 그 장자권을 누리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강조하고 권면했다.

김준형 기자

## “나 같은 꼴통도 하나님 만났는데”

### 고봉준 목사 자서전 미주 재소자 위해 출판

“첫째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둘째로는 저 같은 꼴통도 하나님 손에 잡히면 뭔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고요.”

22년간 재소자를 선교하며 최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란 책을 출판하고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이라는 다큐멘터리를 제작한 고봉준 목사(사마리아교정선교회 대표)의 첫 마디였다.

인생 최악의 나라에서 주님을 만나고 극적으로 회심해 목회자가 된 그는 한국에서 교정선교의 대표적 인물로 꼽힌다. 국내외 교회에서 수많은 간증집회를 인도할 뿐 아니라 교도소에서 집회 인도 및 예배, 성경 공부와 상담, 영치금 후원 등 발로 뛰고 있다. 과거에 아내와 함께 생선 장사를 하며 자비량으로 재소자들을 섬긴 일화는 유명하다.

그런 그가 자신의 일대기를 책에 담았다. 불우한 가정 환경부터 시작해서 수차례 교도소를 드나든 이야기, 회심한 이야기, 그 후의 사역 이야기가 담겨 있다. 회심하기 전 그가 저지른 일들을 읽다 보면 ‘내 앞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다. 좀 순화시켜서 표현할 만도 한데 고 목사는 책 안에 자신의 과거를 낱말이 까발려 냈다.

그는 “이 책의 목적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책은 미국 내 재소자와 노숙자를 섬기는 변화 프로젝트 교도소 문서 선교회가 추진하는 사업의 일환이다. 아담스 카운티 교도소 채플린인 이영희



고봉준 목사가 지난 22년간 재소자들로부터 받은 편지를 읽으며 사역의 보람을 전했다. 고 목사는 최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란 저서와, 같은 내용의 다큐멘터리를 발표했다.

목사(UMC 소속)를 중심으로 이 선교회는 2005년 창립된 이래 20만 권의 책과 비디오를 미국 전역의 교도소와 노숙자 보호소에 무료로 배포했다. 아담스 카운티 재소자들의 신앙간증책도 이미 8권 출판됐고 비디오 영화로도 4편 제작됐다. 최근 이본 목사의 책 “무기수가 주의 종이 되기까지”를 재소자들에게 보급한 이 단체는 고 목사의 책도 재소자들에게 보급하고자 일단 한국어로 편집을 했으며 영어 번역을 하는 중이다.

고 목사는 “재소자들에게 저의 과거를 통해 ‘여러분도 희망을 가지세요’란 메시지를 전하고 싶다. 부끄러운 과거이지만 재소자 선교에 불쏘시개가 된다면 제겐 큰 축복이자 영광”이라고 밝혔다.

그는 7월 20일까지 LA에 머물 예정이며 그 기간 동안 집회를 원하는 교회가 있다면 어디든지 달려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213-220-2751 김준형 기자

## 미주 한인의 날 기념 전국대회 개최지 LA로 확정

### 미주한인재단 2015년 제1차 전국임시총회 개최



미주한인재단이 전국임시총회를 열고 미주 한인의 날 기념 대회를 LA에서 개최하기로 확정했다.

미주한인재단 2015년 제1차 전국임시총회가 4일 오전 11시 이 재단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엘에이 한인타운 제이제이그랜드호텔에서 열렸다.

이날 임시총회에서는 ‘제14회 애국선열합동추모제’ 개최지와 오는 ‘2016년 미주 한인의 날 기념 전국

대회’ 개최지를 엘에이로 결정하고 그 준비에 들어갔다.

이 재단 김성웅 총회장은 “그동안 미주한인재단은 미주이민사에 한민족의 정체성 확립과 신장에 심혈을 기울여 왔고, 그 결과 한인의 위상을 높이는데 많은 기여를 해 왔다”며 “앞으로는 한인 이민 2, 3세를 위해 보다 심도있는 발전 방향을 모색할 것이며, 그 일환으로 주류사회와의 적극적인 교류 방법을 확립해 나갈 것이다. 또한, 본국과의 교류활성화를 통해 미주 지역 한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하며 미주 지역 한인들의 관심과 협력을 당부했다.

이영인 기자

## 빅토빌예수마음교회 새 성전 구매 후 이전

빅토빌예수마음교회(김성일 목사, KPCA 소속)가 자체 예배 처소와 1레이커의 부지를 구매해 이전한다.

새 교회당 주소는 15860 Tao Rd. Apple Valley, CA92307다. 6월 28일 주일 오후 5시 교회 이전 감사예배를 드린다.

이 교회는 7월 첫째 주부터 주일 예배를 오전 8시, 오전 11시, 오후 1시 30분에 드리며 2세들을 위한 주



김성일 목사

일학교는 오전 11시에 있다.

새벽기도회는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5시 30분, 토요일에는 오전 6시에 드린다.

며 7월 12일부터는 크로스웨이 성경공부도 시작한다. 문의) 760-220-3263, jesusmind.net

2015 풀러 신학대학원 컨퍼런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온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약 1:4  
우리는 바울처럼 모든 교회가 강하고 온전해지기를 기도합니다. 고후 13:9

# 건강한 목회자 건강한 교회

## Healthy Pastors Healthy Churches

일시 2015년 6월 25일(목) 오전9시 ~ 오후 4시

장소 풀러신학교 Payton 101

주최 풀러신학대학원 한인목회학박사원 & 소금과 빛 목회자 연구회

강사 김세운 박사, 이정근 박사, 엄예선 박사

신청 fuller201506@gmail.com

회비 10불(점심과 자료집 제공)



김세운 박사  
풀러신학교 신학대학원 신약신학 교수  
건강한 목회자: 사도바울의 예



이정근 박사  
유니온교회 원로목사, FTS 겸임교수, 미성대 명예총장  
건강목회현장: 함성목회 이야기



엄예선 박사  
풀러신학교 신학대학원 가정상담/한국기독교학 교수  
건강한 목회자가 갖추어야 할 점들

건강한 목회자가 되기를 기도하며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를 염원하시는 목회자들, 평신도 지도자들, 사모님들, 신학생들을 초청합니다. 부디 오셔서 유익한 강의도 들으시고 생생한 현장의 경험을 함께 나누며 교체하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 “화려한 언변으로 무장? 사역 현장은 복음의 삶 원해”

## 미주장신 졸업식에서 이상명 총장 격려사 감동

이상명 총장이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제35회 졸업감사예배에서 전한 격려사가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 이 총장은 6월 6일 영락셀러브레이션교회에서 열린 이 행사에서 졸업생들을 격려하고 도전을 던졌다. 먼저 이 총장은 “하나님의 뜻을 늘 기억하면서 최선을 다해 오늘의 영예스런 학위를 받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고 했다. 그는 “자화자찬이라면 용서하라”면서도 “미주장신은 공부하기 싫은 학생은 견디기 어렵다.” “신학 공부 제대로 하려면 이 학교로 가라”는 평을 듣고 있다고 전하고 “최근 몇 년 사이 재학생들과 졸업생들이 본 교단 소속 교회뿐 아니라 타 교단의 여러 교회에서 활발하게 사역하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그리고 성실하게 사역하고 있다는 칭찬을 주면 목회자들로부터 들을 때마다 제가 여러분의 덕을 많이 본다”고 말했다.



이상명 총장

그러나 그는 과거의 자신에 대해 “진정한 신학도였는가 돌아본다”고 회고했다. 그는 “신학은 공부했지만 말씀에 목상하고 그대로 살려고 하는 진정성이 없었다. 비전은커녕 흔히들 말하는 야망조차 없었다. 유학생으로 공부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제 인생에 박사 학위를 받는 순간이 올까 두려움 가운데 학업한 것이 14년 세월”이라고 했다. 이어 “하나님이 저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비전에 대한 사모함이 없이 신학을 다니다가 졸업했다. 저의 부끄러운 과거”라고 했다.

그는 이어, 졸업생들에게 “오늘 졸업하시는 여러분들은 교회와 선교 현장에서 사역하는 동안 하나



미주장신대 제35회 졸업예배에서 5명의 신학사, 35명의 교역학 석사 등이 졸업했다.

님이 주신 비전으로 진지하고 복되고 즐거운 시간을 누리라”고 당부했다. 그는 “매뉴얼과 실전 사이에는 예상하지 못한 격차가 늘 있다. 졸업과 동시에 본격적 학업이 시작된다. 머리만 아닌 가슴으로 배우고

몸으로 경험해야 하는 일들이 더욱 많아질 것”이라 했다. 또 “재학 중 배운 많은 것을 한 마디로 정리하면 복음이다. 그러나 복음을 아는 것보다 복음대로 살고 사역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시대는 화려한 언

변으로 무장한 사역자보다 복음으로 보여주는 사역자를 원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졸업생들에게 그리스도의 누룩과 빛, 소금과 편지, 향기가 되길 축복했다. 김준형 기자

## LA 한인 위한 바이블 컨퍼런스

7월 2일부터 4일까지 채프만대학교에서

LA 한인들을 위한 말씀 잔치 “LA 바이블 컨퍼런스”가 다가오고 있다. 오는 7월 2일(목) 오후 1시부터 4일(토) 오후 3시까지 오렌지카운티에 위치한 채프만대학교(1 University Dr. Orange, CA 92866)에서 열린다. “영생의 말씀,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주해홍 목사(90일 통근 통독, 90일 성경 통독 저자), 셸리안 선교사(에즈라 느헤미야 성경 연구원 대표), 김경환 목사(실크로드 커넥션 디렉터), 지용주 목사(시라큐스한인교회), 김성환 목사(가디나장로교회) 등 5명의 강사가 창세기, 출애굽기, 요한복음, 사도행전, 요한계시록을 강해하게 된다. 이 바이블 컨퍼런스는 2007년 뉴욕 업스테이트 지역 5개 교회가 중심이 되어 시작된 이래 한국에서는 5년 전부터 영 피플 바이블 컨퍼런스가 열리는 등 계속 확장되어 가다 올해는 LA에까지

도달하게 됐다. LA 행사는 파이 어크루세이드, JAMA 청년네트워크, 자이온마운틴 파운데이션, GMT(Global Media & IT) 등이 주관한다. 행사 관계자는 이 행사에 관해 “성경 중심, 예수 그리스도 중심, 교회 중심의 세 가지 핵심 가치를 가지고 참된 예배자, 예수의 제자, 그리고 진정한 중보기도자를 섬기기 위해 열린다”고 밝혔다. 등록비는 150달러이며 숙식과 교재, 주차 비용이 모두 포함돼 있다. 특별히 연령에 관계없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도록 본 행사와 함께 유치, 유년부를 대상으로 어린이 바이블 컨퍼런스도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 특히 주최 측은 청년부 사역자가 없는 교회의 청년들이나 자체적으로 수련회를 열기 어려운 청년부의 참석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문의) 강영수 목사 213-598-5323 www.labibleconference.org

##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는 사역자 되길

### 제24회 월드미션대학교 학위 수여식

월드미션대학교 ‘제24회 학위 수여식’이 6일 오후 1시 동양선교교회(담임 박형은 목사) 본당에서 졸업생과 학교 관계자 및 많은 축하객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임성진 부총장의 사회로 진행된 학위 수여식에서는 신학사 19명, 석사 22명, 박사 2명 등 총 51명에게 학위가 수여됐다. 송정명 총장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이라는 훈화를 통해 “졸업은 끝이 아닌 또 다른 상위 단계로의 진입을 위한 시작을 의미한다. 따라서 더 많이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인정받는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며 “먼저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그 다음 사람에게서도 인정받는 사람이 되길 바란다. 그래서 예수의 향기를 내며 하나님께 인정받는 진정한 일꾼이 되는 졸업생들이 되길 당부한다”고 말하며 졸업생들의 앞날을 축복했다. 박선민, 윤주영 학우는 축가로 선배들의 졸업을 축하했고, 고돈범선학우의 답사, 회중이 모두 함께하는



월드미션대학교 제24회 학위 수여식이 동양선교교회에서 거행됐다.

헌신의 기도, 교가 제창, 그리고 설립자 임동선 목사의 축도를 끝으로 모든 학위 수여식이 은혜롭게 마무리됐다. 특별히, 이번 학위 수여식은 목회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채 지난 5월 13일 소천한 남조웅 선교사를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전하며 조용하고도 엄숙한 가운데 진행됐다. 한편, 월드미션대학교는 지난 2013년 8월 8일, 대학원 과정에 대한 ATS(The 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 신학대학원협의

회)의 정회원 인준을 취득했다. 월드미션대학교는 ABHE와 TRACS에 이어 ATS의 정회원 인준까지 받음으로써 학부와 대학원 전체에 걸쳐 미 교육부 산하 신학 인준기관의 정회원 인가를 모두 받은 최초의 한국계 기독교 대학교이다. ATS는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풀러, 탈봇, 아주사 퍼시픽, 클레어몬트 등 북미주 신학대학원이 가입한 학력인증기관으로서 신학교육기관들을 평가하고 인증하는 가장 권위 있는 단체이다. 이영인 기자

천천히 다 돌려보내고 오세요~  
**당신의 마지막 카드**  
13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 전문인, 찰리 정

**푸엔테 힐스 현대 HYUNDAI**  
Pueno Hills Hyundai

찰리 정 (FLEET MANAGER) | 213-276-8959 | email: usajyk@gmail.com

**새빛한의원**  
Saevit Acupuncture clinic  
213-389-8275  
520 S. Virgil Ave., #305 Los Angeles, CA 90020

**한방내과, 한방성형 & 통증클리닉**  
늘 환자의 고통을 함께 나누며 환자의 몸이 지니고 있는 “자연치유력”을 살려내는 새빛이 되겠습니다.

수술없는 한방 성형  
체진 턱선을 올려 젊음 유지  
아름다운 여인이 되어보세요.

**한방감기 특별처방!!**  
(5일분-\$35)

약력 북경중의약대학졸업 전 한의과대학 교수역임(삼라한의원) 교통사고 · 각종보험 · 여행자보험

**GOLDEN GATE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골든게이트침례신학대학원에서 한영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학위과정: 목회학사 (M.DIV.) & 신학석사 (M.T.S.)  
위치: GOLDEN GATE SEMINARY S SOUTHERN CALIFORNIA CAMPUS  
골든게이트남주캠퍼스 (251 S. RANDOLPH AVE. SUITE A, BREA, CA 92821)  
지원 마감일: 7월 15일 (예비지원서 [PRE-APPLICATION] 는 6월 1일)

**> 한영이중언어과정은**

- 미래이민교회의 지도자들을 훈련시키는 목회자양성프로그램입니다.
- 세계최대의 개신교단인 남침례교회가 후원합니다.
- 본교의 자원과 커리큘럼이 활용됩니다.
- 성경적이고 선교적이고 세계적인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 탁월한 학문성과 교단의 지원 그리고 이민교회 목회자로서 온전히 구비된 미래교회지도자들을 위한 과정입니다.

본 과정은 주로 한영이중언어로 진행되지만 골든게이트신학대학원의 교수진과 지원이 충분히 반영됩니다. 북미주 최고의 학력인증기관인 the 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 (ATS)와 Western Association of Schools and Colleges (WASC)에서 학위를 인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CONTACT FOR CONSULTATION: 714) 256-1311 EXT. 124 KEB@GGBTS.EDU  
FOR MORE INFORMATION: WWW.GGBTS.EDU/KEB



# 저작권 단체로부터 라이선스 구매해야

## CCLI 측, 저작권 세미나-엘로힘 측 “교회에 양해와 협력 구해”

〈1면으로부터 계속〉 이런 맥락에서 성가대원들이 모두 악보를 구매해 연주한다면 저작권 문제는 해결된다. 성도들 역시 저작권을 확보한 찬양곡집을 구매해 부른다면 일단 문제가 없다. 예배 때 찬양을 부른 부분을 제외하고 동영상 파일로 저장해 보관하거나 인터넷 방송을 하면 된다. 조금 번거롭지만 불가능한 건 아니다.

아예 속 편하려면 찬송가만 부르면 된다. 찬송가의 경우는 성경과 함께 구매했던, 찬송가집만 구매했던 구매 사실이 분명하므로 문제될 것이 없다. 그러나 찬송가 역시 복사해서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거나, 주보에 실으면 저작권에 저촉된다. 또 이 찬송가를 영리 목적의 공연에 사용하거나 편곡, 재배포 할 시에는 당연히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방법2. 정당하게 대가 지불 후 사용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것이 어렵다면 저작권 라이선스를 합법적으로 구매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먼저 사용하고자 하는 곡의 저작권자와 대행자를 찾는 게 순서다. 대표적인 CCM 저작권 관리 단체인 CCLI (Christian Copyright Licensing International)는 1980년대 초 발족돼 전세계 4000여 이상의 단체와 협력해 총 20만 곡을 관리한다. 즉, 이 단체에 회원으로 가입하면 이 20만 곡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 단체는 한국의 저작권 단체인 CAIOS, CCM SKY, Copycare Asia, 광수미

디어 등과도 제휴해 CCM 관련 600명의 3천 곡을 관리한다. 대표적으로 마커스워십, 어노인팅, 강명식, 울네이션스 경배와 찬양 등이 이곳에 포함돼 있다. 물론, 최용덕의 “일어나 걸어나라” 등 상당히 오래된 곡들도 대다수 보유하고 있다. 이 곡들은 <http://kr.search.ccli.com>에서 곡명은 물론 가수 이름으로도 검색해 볼 수 있다.

만약 여기서 곡을 찾을 수 없다면 한국교회저작권협회(KCCA), 한국기독교음악저작권협회(KGMCA), 한국크리스천음악저작권협회(KCMCA) 혹은 일반 음악을 관리하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www.komca.or.kr) 등에 일일이 문의하거나 곡을 검색해 반드시 저작권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한다. 그리고 만약 손영환, 조동희, 김광현, 유상열, 채한성, 김진오, 김신석, 권혁도의 곡을 사용하고자 한다면 이들의 저작권을 대행하는 엘로힘의 라이선스를 취득해야만 한다. 이들은 대부분 월 사용료, 혹은 연 사용료를 교회로부터 받고 자신들의 단체가 위탁받은 모든 곡들을 자유롭게 사용하게 해 준다. 따라서 교회는 사용하려는 곡들의 저작권 라이선스를 어디서 확보할 수 있는지 정확히 확인해야 법적인 갈등을 피할 수 있다.

### 엘로힘 측 사태 해명하고 협력 구해

이들에 대부분 월 사용료, 혹은 연 사용료를 교회로부터 받고 자신들의 단체가 위탁받은 모든 곡들을 자유롭게 사용하게 해 준다. 따라서 교회는 사용하려는 곡들의 저작권 라이선스를 어디서 확보할 수 있는지 정확히 확인해야 법적인 갈등을 피할 수 있다.

### 이번에 한인교회를 대상으로 공문을 발송한 엘로힘 EFP의 한국쪽 협력사인 엘로힘 CMP의 한국대표 채한성 음악감독은 최근 공문으로 인해 발생한 혼란에 대해 “보유한

저작권자의 수가 많은가 적은가, 라이선스 비용이 높은가 낮은가의 문제가 아니다. 사용한 곡, 사용할 곡에 대해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그는 “교회와 CCM 사역자는 상생해야 하기에 저작권 문제에도 교회에 양해와 협력을 구한다. 일각에서는 이 문제로 교회에 법적 책임을 묻는 게 아니냐는 오해도 있지만 저도 CCM 사역자의 한 사람으로서 한인교회에 이 문제의 중요성을 알리고 CCM과 교회 문화의 발전을 위해 협력을 구하는 마음뿐”이라고 했다.

또 “경제적 문제로 인해 찬양 사역에 어려움을 겪는 동료들에게 도움이 되고, 결과적으로 찬양 사역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저작자에게 정당한 권리가 돌아갈길 원한다”고 하면서 “엘로힘은 한인교회를 섬기기 위해 저작권자 확보와 정확한 시장 조사 등으로 최선을 다해 섬기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CCLI 한국지부는 최근 공문에서 “무리한 저작권 요구로 분쟁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단체의 저작물은 사용을 중지하는 것이 안전하다”면서 “미주 지역에 소재한 교회는 미주 현지 CCLI에 가입하면 한국 곡들도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오는 6월 13일 오후 2시 주님의영광교회에서 CCLI 한국지부 합승도 대표를 감사로 <교회 안의 저작권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해결방법>이라는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기도 하다.

김준형 기자



지난 8일 국제농업박람회 관계자들이 LA를 방문해 동포사회를 대상으로 박람회를 소개했다.

## 한국 농업 우수성 전세계에 알려요

### 나주·진주·제주에서 농업 관련 박람회

농업 선진국으로 도약하고 있는 한국에서 관련 박람회가 연이어 열린다. 지난 8일 국제농업박람회 최민수 사무국장 등 관계자들이 LA를 방문해 동포사회를 대상으로 박람회를 소개했다. 최 사무국장은 미주 동포 사회에서도 한국의 농기술과 농특산물에 관심을 갖고 박람회에 참여해 달라 부탁했다.

먼저는 10월 15일부터 11월 1일까지 나주에서 열리는 국제농업박람회다. “창조 농업과 힐링의 세계”라는 주제 아래 열리는 이 박람회는 2년마다 열리는데 한국의 최첨단 창조 농업과 기술을 소개하고 특별히 현대 사회의 큰 이슈 중 하나인 힐링을 농업으로 조명하는 것이 특징이다. 농업 테마파크, 힐링 체험관 및 힐링 농장, 250여 종의 아열대 식물이 전시된 아열대관도 있어 가족 단위 방문객도 많다. 세계 20개국에서 350개 기업이 참여할 정도로 규모가 크다.

11월 11일부터 15일까지는 진주에서 국제농식품박람회가 열린다. 30개 국에서 300개 기업이 700여 개 부스를 설치해 신식품 및 농업

신기술을 선보이는 등 농·축산·임업 분야에서 새롭게 발전하고 있는 기술들을 망라하는 박람회다. 특히 해외 바이어와 농기업의 1대 1 매칭으로 한국 농업 수출에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관람자 수도 2011년 30만 명에서 2014년에는 52만 명으로, 수출계약도 249억원에서 635억 원으로 급성장했다.

11월 6일부터 15일까지는 제주에서 국제감귤박람회가 열린다. 제주의 특산물인 감귤을 주제로 문화, 예술, 산업 분야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감귤 관련 생산, 유통, 농기계 및 자재 등 모든 분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국제 시장에 감귤 수출 활로를 열기 위한 행사다.

최 사무국장은 “해외에서 바이어가 이 행사 참석을 위해 방문할 경우, 항공료를 전액 지원할 뿐 아니라 숙박 및 관광 등에도 편의를 제공한다”고 강조했다. 박람회 관련 정보는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나주 국제농업박람회 [www.iae.or.kr](http://www.iae.or.kr)  
진주 국제농식품박람회 [www.agrex.or.kr](http://www.agrex.or.kr)  
제주 국제감귤박람회 [www.citrus-expo.com](http://www.citrus-expo.com)

## 미션크리스천대학교 졸업 및 학위 수여식

### 유요한 총장 “언행일치의 신앙 인격으로 빛과 소금되길”

미션크리스천대학교 2015년 졸업 및 학위 수여식이 8일 오후 2시 운티 지역에 소재한 함께하는교회 (담임 최성철 목사)에서 졸업생과 재학생 및 학교 관계자를 비롯, 많은 축하객들이 함께하는 가운데 은혜롭게 열렸다.

박희민 목사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일꾼’(잠언25:11-13)이란 주제로 설교하며 “졸업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의미한다. 이 새로운 출발을 앞둔 모든 졸업생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길 바란다”고 그들의 앞날을 축복했다.

유요한 총장은 “주경야독의 힘든 생활 속에서도 끝까지 과정을 통과한 졸업생들에게 아낌없는 축하를



교수진과 학교 관계자 및 재학생들이 주경야독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또 다른 출발선 앞에 선 졸업생들을 위로하며 격려하고 있다.

보낸다”며 “본 대학의 학훈처럼 언행일치의 신앙인격자로 거듭나 이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학교는 ‘신앙 인격의 하나님의

일꾼’ 배출을 목표로 지난 2006년도에 개교해 학위 취득까지 전원 장학혜택을 준다. 문의는 562-869-7497, [www.mcuniversity.org](http://www.mcuniversity.org)로 하면 된다.

이영민 기자

## 건강한 목회자 건강한 교회 컨퍼런스

풀러신학교 한인목회학 박사원 과 소금과빛목회자연구회 주최로 <건강한 목회자, 건강한 교회> 컨퍼런스가 6월 2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교내 페이튼홀 101호에서 열린다.

강사는 유니온교회 원로이며 미

성대 명예총장인 이정근 박사, 풀러신학교 신약학 교수이자 바울신학의 권위자인 김세운 박사, 가정상담학 교수인 엄예선 박사다. 회비는 10불이며 점심과 자료집이 제공된다. 신청은 [fuller201506@gmail.com](mailto:fuller201506@gmail.com)으로 하면 된다.

## 기독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장재호, 이원삼, 박기호, 방지각, 김준연, 고승희, 민종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이인규  
고문변호사 : 정찬용  
지사망 :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틀랜타,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a@gmail.com](mailto:chdailya@gmail.com)  
Payable to order : Christianity Daily  
주소 :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Welcome to a better world

**Green M. Wild** IMAGE SYSTEMS  
Sales Representative : Eric Kim  
[GreenMWild@gmail.com](mailto:GreenMWild@gmail.com)  
TEL : 213 705 7778

모든 사용자를 만족시키는 업무 효율의 혁신

**KONICA MINOLTA bizhub**

최첨단 고해상도 칼라 디지털 복합기  
칼라복사/칼라프린트/칼라스캔/팩스/네트워크  
최고의 인쇄 품질과 획기적인 비용절감

교회 및 자선, 비영리단체는 특별한 혜택  
Used printers trade in & purchasing

**bizhub C554e/C454e/C364e/C284e/C224e**

C554e Colour B&W 55/55 ppm	C454e Colour B&W 45/45 ppm	C364e Colour B&W 36/36 ppm	C284e Colour B&W 28/28 ppm	C224e Colour B&W 22/22 ppm	Dual Scan ADF 160 ppm Duplex	Dual Scan ADF 80 ppm Simplex	USB Print	Colour Internet Fax	Mobile Support
-------------------------------------	-------------------------------------	-------------------------------------	-------------------------------------	-------------------------------------	--	--	--------------	---------------------------	-------------------

Simitri  
bizhub Marketplace



#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할 때

요한복음 12:35-43



서울 성은교회 목사 장재효

### 요한복음 12:35-43

35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두움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느니라 36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37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저희 앞에서 행하셨으나 저희를 믿지 아니하니 38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라 가로되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39 저희가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까닭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40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함이니라 하였음이라 41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42 그러나 관원 중에도 저희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을 인하여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회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43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 1. 예수님을 따르는 궁극적인 목표

다윗의 신앙고백에 의하면 하나님은 손에 권능이 있으시기 때문에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높은 자를 내리기도 하시며 빈핍한 자를 부요하게도 하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실 때는, 세상 조건보다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에 따른 믿음 여부가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 열매나, 어떻게 쓰임받고 성공할 수 있겠는가를 결정짓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 이하에서 갈릴리에서 헬라 사람 몇이 와서 빌립에게 우리가 예수님 뵈기를 원한다고 했을 때 예수님은 이상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하시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는 궁극적 목표가 육신이 세상사는 날 동안 영광을 얻거나 출세, 권력 또는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가신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아버지와 아들로 더불어 영원히 함께 사는 내세 소망의 궁극적 목표를 위한 믿음이어야 한다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 2.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충돌할 때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함

27절에 보면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하셨습니다. 이것은 인간성과 영성을 겸하여 나타내 보이신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육적인 입장에서 그 행패와 고통 속에 죽임 당하시는 일은 상당히 고통스러울 것이기 때문에 면하게 해 달라는 기도를 하셨으나, 즉시 바꾸어 기도하시기를 기꺼이 십자가를 질 것을 의지적으로 밝히시는 내용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신 28절의 말씀은 예수님은 죽을 각오를 하고 행패와 수모와 십자가 형통에 못 박히셨습니다. 창과 가시들에 찔리는 육신의 견디기 어려운 고통을 각오하시면서 자기의 죽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영광스러운 일임을 이렇게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때 하늘에서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는 소리가 났습니다. 곁에 섰던 사람들은 우뢰가 울었다고도 하고, 천사가 말하였다고도 했으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요 12:30-32)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하시며 증거해 보이신 이 사건은, 그 음성을 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더 깊이, 더 정확하게 그리스도임을 알아보고, 믿어져서, 회개함으로 구원 얻게 하심을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 도래하면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는 요한계시록 21장 1절의 말씀과 같이 새 창조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이끌어가기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하게 하신 후, 온 인류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로 구원을 얻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는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 3.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랑함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예수님을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참 빛이고 진리의 빛이며, 생명의 빛입니다. 빛이 세상에 왔으

되 사람들이 자기의 행적이 너무 악하여 빛보다 어두움을 더 의지하고 숨어버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 빛으로 나오게 되는 것은 빛 가운데서 행한 자기의 떳떳한 일들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나 보여지기를 원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요 12:36) 하시고 저희를 떠나 숨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8절에서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는 말씀은 이사야 53장 1절의 말씀입니다. 본문 39절에 “저희가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까닭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함이니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믿어지지도 않게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적 기사를 행하시며 많은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다양하게 충분히 보여주시고, 체험시켜 주시며, 들려주셨지만, 그 백성들이 목이 굳고 마음이 완악해서 강박한 연구로 도무지 예수님을 알아 볼 줄도, 믿어 회개하지도 아니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려 하지 않았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에 예언하신 언약의 말씀을 완전히 불신했고, 그 말씀대로 보내오신 예수님을 배척하면서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면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6장은 웃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하나님 성전에 들어가 기도를 하는 내용입니다. 9-10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사

야에게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눈으로 보면서도 믿어지지 아니하도록 마음이 굳어버렸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보내주시는 메시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을 가능성이 없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본문 요한복음 42-43절에 “그러나 관원 중에도 저희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을 인하여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회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는 말씀은 예수님 공생애 과정에서 예수님을 믿고 하늘 소망을 기대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밝히 드러내지 않고 숨는 이유는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얻고자 하는 믿음이 있으면서도 담대하지 못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도 전혀 깨닫지 못하는 이들에 대해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복음 전파를 위해 성령이 충만해서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담대히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며 나를 구원하셨고 나는 하늘나라 갈 것이다. 그러나 당신은 믿지 아니하면 지금껏 수밖에 없으니, 내가 믿는 예수님을 알아보고 믿어서 회개함으로 죄와 죄 값의 형벌, 저주, 지옥을 벗어나서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구원을 얻으라”고 담대히 증거하는 믿음의 종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성은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 / 인터넷 동영상 설교

한 국 선 교 설 교			
TV 한국방송 설교		한국 신문 설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크리스천 투데이	7면 설교 / 동영상 · 인터넷신문 설교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경북 기독교 신문	3면 설교
		기도원 연합신문	3면 설교
해 외 선 교 설 교			
TV 미국방송 설교		라디오 미국방송 설교	
COX TV	화요일 오후 6시	목요일 낮 12시	AM1540 라디오 코리아
워싱턴DC.	토요일 오전 7시	주요일 오후 10시30분	주요일 오전 7시 / 동영상 설교 제공
CTS TV	수요일 서부 오후 4시30분 / 동부 오후 7시30분	토요일 서부 오후 6시 / 동부 오후 9시	AM1190 사카고 기독교방송
			AM1190 월요일 오전 11시 20분
			LA 미주 복음방송
			월요일 오후 5시 / 하와이 현지시간 오후 5시
미 국 신 문 설 교			
기독일보	5면 설교	오프라인 칼럼 설교	AM1310 화요일 오후 7시30분
	인터넷신문 설교	온라인 칼럼 설교	AM1650 금요일 오후 2시30분
크리스천 헤럴드	7면 설교	오프라인 칼럼 설교	FM91.5(SCA) 수요일 오후 1시, 오전 2시
			AM1650 LA 미주 기독교방송

지구촌 어디서든 YOU TUBE에서 “장재효 목사”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시청 가능합니다.

提供 국제성은복음선교회

# 2015 미주기독교대학박람회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측 목사고시, 안수가능)  
 I-20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 4691 Fax. 562-926-1025  
 www.pts.edu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호라이즌대학교**  
 학위취득 과정 및 학생모집 학과  
 학사: 신학/상담학  
 석사: 신학/목회학/상담학  
 박사: 신학/상담학  
 CA 주정부 교육국 BPPE 인가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520 S.La Fayette Park Pl. #411 LA, CA 90057  
 Tel. 213) 736-5000 Fax. 213)736-5115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TRACS정회원 인증  
 특장: Sovs I-20발행/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장학제도 있음  
 학사과정: 성경학 학사(B.A in Biblical Studies)  
 석사과정: 목회학 석사(Master of Divinity)  
 종교학 석사(Master of Art in Religion)  
 2660 W.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미주대한신학대학**  
 개혁주의에 기초한 성경해석과 성경에 대한 종합적 사고능력 배양,  
 교회 역사와 신학에 대한 구속사적 안목의 정립,  
 말씀을 실천하는 신실한 주의 종 양성,  
 세계 복음화를 위한 영적인 리더십의 준비.  
 1325 12th Ave, Los Angeles, CA, 90019  
 Tel. 323-731-9819

**솔로몬대학교**  
 명품까지 제자를 삼아 복음을 전하자 (마태복음28:18-20)  
 총장: 백지영 박사 부총장: 브랜트 프라이스 박사  
 3921 Wilshire Blvd, #4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381-7755 Fax. 213-381-5055  
 http://solomonuniv.org/

**AMERICAN BAPTIST SEMINARY OF THE WEST, BERKELEY, CA**  
 L A Campus 목회학 박사과정  
 (매년 1, 6월 통역제공, GTU 와 ATS 정회원)  
 Dr. Hyo Shick Pai: drhyopai@gmail.com  
**ABSW President: Dr. Paul Martin** www.absw.edu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ABHE, TRACS, ATS 정회원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온캠피스 & 온라인 프로그램  
 신학, 목회학, 기독교상담학 학사/석사/박사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 213) 388-1000 Fax: 213) 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

**코헨대학교&신학대학원**  
 With the world!  
 To the world!  
 17002 S.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424-257-8176 / Fax. 424-257-8136  
 www.cohenuniversity.ac

**캘리포니아 두란노 대학 신학대학원**  
 목회학, 신학, 철학박사 California Tyrannus University  
 BPPE Ed, code 94874, Sc code 22426  
 CEO 학감 김호 박사  
 1008 S. Kingsley Dr, Los Angeles, CA 90006  
 Tel. 213-507-1933

**미주총신대학교 CHONG SHIN UNIVERSITY IN USA**  
 개혁주의 신학의 전통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21세기 교회와 세계 선교 사명을 이끌어 갈  
 사역자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이사장 김연도 박사(D.P.M.) 총장 김근수 박사(Th.M., Ph.D.)  
 2975 Wilshire Blvd.#3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487-1010 e-mail: info@chongshinusa.edu  
 www.chongshinusa.edu

**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다기독교학과(BA),목회학석사(M.Div),상담학석사,선교학석사,ESL,TESOL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안수 후 미주 및 한국에서 사역 가능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류종길 박사, 이사장:조종권 목사  
 1818 S. Western Ave, Suite 409, Los Angeles, CA 90006  
 Tel (323)643-0301 / Fax (323)643-0302  
 www.aeu.us / aeuimaster@gmail.com



## 담임목사님을 청빙합니다

Houston, TX에 위치한 휴스턴 한인 교회(독립교단)는 45년의 역사와 자체성전과 기도원을 소유한 교회로서 아래와 같이 담임목사님을 청빙합니다.

### 자격조건

- 1) 목회비전과 철학이 있고 사랑으로 목양 하실 분
- 2) 보수정통 복음주의 신앙 소유자
- 3) 이중언어 가능한 분(한국어,영어)
- 4) 목사 안수 받으신 분
- 5) ATS 승인받은 정규 신학대학원 목회학석사(M.Div)를 졸업하신 분
- 6) 미국에 체류하는데 결격사유가 없는 분
- 7) 담임목사 나이: 31세-49세

### 제출서류

- 1) 이력서(한영 각 1부) 및 가족사진(본인, 사모 및 가족)
- 2) 신앙고백과 목회철학 각 1부
- 3) 본인 및 사모 그리고 가족소개서
- 4) 최근 설교 2편 CD 우편발송
- 5) 정규 신학 대학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 6) 목사 안수 증명서
- 7) 추천서 2통(목회자 2명 이상), 추천인 연락처 기재

### 접수안내

- 1) 제출마감일: 2015년 7월 30일
- 2) 제출처: The Korean Christian Church of Houston  
Pastor Nominating Committee (담임목사 청빙위원회)  
10410 clay Rd., Houston TX 77041  
\*이메일 접수도 가능: kcchoffice@gmail.com  
(설교CD는 우편으로만 보내주세요)
- 3) 교회 전화: 713-937-7444
- 4) 청빙위원장: 진상철장로 (휴대폰 713-498-3545/  
email: sangkumchin@gmail.com)

### 기타

- 1) 제출서류는 우편 및 이메일 첨부로 보내주시고
- 2) 서류심사 통과된 분에게는 추가서류와 면담과 설교를 요청 드릴 수 있습니다.
- 3)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비밀보장합니다.

휴스턴 한인 교회

## 크리스천 자녀를 위한 골프·성경교실

저렴한 비용으로 골프와 성경공부를 함께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성경공부를 통해 영성과 인성교육을 하며, 골프를 통해 집중력과 체력향상을 시켜줍니다. 귀한 자녀에게 이 두 가지를 함께 가르치는 전문인에게 믿고 맡겨주십시오. 달라지는 자녀의 모습을 보게 되실 겁니다. \*픽업가능

- 문의 : 최 제이콥 Professional (310-598-0746)
- Email : mrjacob601@hotmail.com
- 성인을 위한 무료 골프교실도 오픈합니다 (성경공부 필수)
- 피아노반주 가능한 전도사님을 찾습니다.

### <최 제이콥>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New Bridge University Golf Management  
The Reformed University 대학원  
Dae Han Theological Seminary, U.S.A 선교학 Ph.D  
현 '제일좋은 예담교회' 담임목사

## Pre-K/Kindergarten Pastor

유치부 전도사

### Description:

Good Shepherd Presbyterian Church (GSPC) is located East of Los Angeles in the city of Rowland Heights. We are searching for a part-time pastor to shepherd our preK-kindergarten (age 3-6) department. We are searching for a shepherd who will love, model, and teach our young children toward our Lord Jesus Christ.

### Qualification requirements are as follows:

1. Currently enrolled, or graduated from a Bible college or theology program at an accredited seminary. Verification WILL BE requested prior to hiring.
2. Thorough understanding of the Korean-American immigrant church and cultural context.
3. Fluency in English. Fluency in Korean is not necessary but this position requires at least some ability to communicate with Korean parents.
4. Previous children's ministry experience preferred but we will consider all applications.
5. A person of prayer.
6. Must have a family-centered ministry mindset, as parents are a crucial part of the ministry.

### Primary duties are as follows:

1. Direct and lead Sunday worship as well as Bible study each week.
2. Direct and lead Friday night fellowship each week.
3. Create and execute annual plan and budget for the kindergarten department. The annual plan will include activities and events such as: VBS, prayer meetings, and any other fellowships.
4. Oversee and lead a staff of Bible study teachers.
5. Collaborate and work with other pastors in the Christian Education department.
6. Report to the Christian Education pastor.

Position	Salary and Housing	Benefits
Part-time	\$1500/month	none

a Resume with picture and Testimony  
2 or 3 letters of recommendation/must come directly to Clark Choi from the recommender via email or US mail  
mp3 or a youtube link to one of your sermons it would strengthen your application.

### Good Shepherd Presbyterian Church

1816 S. Desire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EMAIL: clarkjdsn@yahoo.com (To: Pastor Clark Choi) Phone: 714.328.2866

## 좋은 공동체의 3대 요소



민종기 목사  
총현선교교회

입다와 같은 사사가 자기의 딸을 죽이고 제물로 태워서 바치는 이야기나 삼손이 이방 여인을 전전하면서 타락하는 모습은 지도자의 마음이 어떠한 상태인지를 가능하게 한다. 백성들도 마찬가지다. 이방의 우상을 섬기면서, 이방의 통치를 극복하기에는 너무 주눅 들어 있다.

백성과 지도자가 모두 이처럼 부패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공통 분모를 잃어버린 것이 그 원인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떠남으로 공공의 예지가 상실되어 버렸다. 이제는 유대 민족의 핵심인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을 둔 언약과 사회적 목표의 공유는 없다.

## 영적 사막화



김지성 목사  
글로벌선교교회

수 밖에 없다.

사막화가 꼭 땅에서만 일어나는 현상만은 아닌 것 같다. 영적으로 확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감사와 기쁨의 삶이 사라지고 마음이 무미건조해지는 상태로 바뀔 때 영적 사막화가 시작될 수 있는 것이다. 사막화의 주범이 대기 오염이듯 영적 사막화의 주범은 영적 오염이라 할 수 있다. 듣지 말아야 할 말, 불필요한 오해, 별로 중요하지 않은 생각들, 남에 대한 험담, 불평과 불만의 목소리들이 난무할 때 영은 오염되기 시작한다. 영이 오염되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통찰이 차단된다. 성령의 소리가 희미해지며, 성령의 소리보다 자신의 내면의 소리가 커지기 시작한다. 내면의 소리는 미세 먼지처럼 영적 통로를 차단시키며 그 결과 영성 교감이 시작된다.

하나님은 이러한 안타까운 실패의 상황에서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사사를 구원자로 세우신다. 그렇지만 사사도 온전한 지도자가 아니다. 병든 백성에게 병든 지도자가 세워진다. 또 기도원과 입다와 같은 사사가 죽음을 무릅쓰고 싸워 승리하였는데도, 소위 엘리트 지파라고 자임하는 에브라임은 기도원과 입다에게 왜 자신을 전쟁에 데리고 나가지 아니하였느냐고 시비를 건다. 기도원은 겸비하게 자신과 자신의 지파 므낫세보다도 에브라임지파가 더 큰 공을 세웠고 탁월하다고 그들의 자만심을 만족시킨다. 그러나 입다는 교만한 에브라임지파와 전쟁을 벌여 에브라임지파 사람을 42,000명이나 죽인다.

좋은 공동체의 3대 요소는 좋은 지도자, 좋은 백성, 그리고 그 둘을 결합하는 공공의 예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정신적 공통 분모다. 사사시대는 이 점에서 이상사회가 아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상적인 정치제도는 아니지만, 하나님은 다윗왕국을 통하여 새로운 정치적 대안인 왕정의 여명을 준비하신다.

사막화의 방지는 대기 오염을 줄이는 것이 최선이라 한다. 하지만 인류는 이에 대한 대책이 없다. 사람들의 필요를 외면할 수 없기 때문에 각종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들을 쉬지 않고 가동시키고 있다. 공장 수는 더 늘어만 간다. 편리한 교통수단인 자동차의 생산은 폭발적으로 증대되고 있고, 자동차 운행 지역은 날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할 수 없이 나무를 심고, 수로와 저수지를 늘려가지만 말 그대로 이것은 차선책에 불과하다.

영적 사막화를 막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영적 오염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다. 불필요한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자. 귀를 솔깃하게 만드는 흥미 본위의 이야기에 주목하지 말자. 불평의 소리, 원망의 소리, 섭섭함의 소리에 마음을 주지 말자. 남에 대한 험담의 소리를 차단하자. 또 스스로 그런 영적 오염물질을 내뿜지도 말자. 별 생각없이 내뿜은 그 말들이 쌓이고 쌓여 영적 오염을 가속화시킨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당사자의 몫으로 다시 되돌아오며, 최종의 손해자는 그 자신이 되기 때문이다.

생각해 보니 거대한 지구의 사막화보다 훨씬 더 무서운 것이 영적 사막화임이 분명한 것 같다.

## 태평양 바다



엄영민 목사  
오렌지카운티제일장로교회

는 바다이기도 하다. 그리고 보면 우리가 아무리 멀리 간다해도 결국 태평양을 벗어나진 못하고 산다. 그도 그럴 것이 태평양은 동서로는 캘리포니아에서 한국의 바다까지, 그리고 남북으로는 북극에서 남극까지 이르고 남북미는 물론이고 아시아와 오세아니아 등, 지구의 거의 모든 대륙이 태평양을 끼고 있고, 이 안에는 무려 이만 오천개나 되는 섬들이 있다. 교통이나 통신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대에는 그 방대함이 오히려 많은 장애가 되기도 했을 것이다. 그래서 같은 태평양이라도 태평양이 꼭 끝과 저 끝은 그야말로 전혀 딴 세상에서 살았을 것이고, 태평양이라는 이 큰 바다는 대륙과 대륙을 나누고 문화와 문화를 격리시키는 바다로 인식되기도 했다. 그러나 교통 통신이 발달하면

서 태평양은 더 이상 지역적 단절의 상징이 아닌 태평양 속의 다양하고 방대한 모든 것들을 하나로 통합하고 이어주는 상징으로 생각되고 있다.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태평양 시대의 도래를 예언해 왔고 이제는 실제로 그런 시대가 온 것이다. 그 태평양 시대 속에는 미국과 한국도 하나고, 지구의 정반대 쪽에 위치해 있다는 브라질과 한국도 하나이고, 남극과 북극도 하나가 된다.

그러다가 문득, 이 큰 바다보다 더 대단한 것은 바로 이 바다를 만드신 분이라는 사실이 생각났다. 이 바다의 경계를 정하시고 내는 여기까지라고 말씀하신 분이 바로 그 분이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오묘한 삼라만상이 깃들인 바다를 만드신 분 안에 얼마나 깊고 넓고 다양하고 광대하며 오묘하고 신비한 것들이 담겨 있을 것인가?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의 마음도 이렇게 왜소하고 비루한 상태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하는 깨달음이 파도처럼 밀려온다.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대상29:11-13)”





혈액 해독 / 기력회복

천연 항염, 혈관 탄력

심장, 뇌 혈전용해

뼈, 골수 영양공급

## 권장소비자가격: \$184/병

눈으로 직접 확인 하세요!

병치료와 장수의 시작은 피를 맑게 하여 알칼리화 시키는데 있습니다



셀라케어 제품은 6년 경작후 1년 휴지기를 지키면서 유기농으로 재배한 작물을 엄선하여 우리몸에 흡수가 잘 되는 알칼리성으로 만듭니다. 많은 영양제중 M3만이 알칼리 테스트(PH Test)에서 최고 품질 보라색으로 변합니다

# 신비한기적의영양제 M3<sup>®</sup> 세트

- 좋은 흙에서 나온 식물성 원료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믿을 수 있습니다.
- 체내 흡수가 빠르므로 복용 효과가 높습니다. (1-3일 내)
- 혈액을 깨끗하게 하고 혈액 내에 영양을 공급하여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함으로서 무슨 병이든지 큰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 세계 특허(특허번호 51281391) 공법으로 제조되어서 복용 후 체내 흡수율이 다른 제품에 비해 월등히 높습니다. (흡수율 92-96%)
- 셀라케어의 모든 제품은 남녀노소 모두 복용가능합니다.

유태인 특수영양제 - 셀라케어  
**SELLA CARE<sup>®</sup>**

### 셀라케어 효능사례

## 무슨 병에 걸렸는지 큰 효과를 줄수 있는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발작 · 자폐 · 무감각 증세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나 간질, 발작 증세, 자폐증에 무감각증으로 19년 동안 고생중에 셀라케어 복용후 많이 호전되었음 <b>방세환(20세, 한국)</b>
관절염 · 변비 · 생리통	손가락이 심하게 아파 소염진통제 로도 잘 안들었으나 셀라케어 복용 후 통증이 가라앉고 변비도 없어졌 으며 생리통과 우울증도 사라졌음 <b>황정희(39세, 미국)</b>
중풍 · 마비 · 당뇨	15년동안의 당뇨합병증으로 고생 중 딸의 권유로 셀라케어 복용후 얼굴의 마비가 7개월만에 많이 호전됨. <b>민명자(65세, 한국)</b>
일본 원자력 피해	선천성 뇌하수체호르몬 분비가 안 되어 허반신 마비, 간질, 정신박약, 비정상 성장에서 셀라케어 2개월 복용후 검고 말함. <b>토요타 유이토 2세(일본 제바) 090-9934-2333</b>
자폐증	7세 남자아이 가 자폐증으로 셀라 케어 복용후 호전됨. <b>지민 엄마(미국) 616-822-4627</b>
혈소판	3살 반부터 혈소판 수치가 50-29 까지 떨어졌다. 셀라케어 복용 후 한달 반만에 정상수치(100-400) 로 돌아옴. <b>김예은(7세, 미국) 213-798-8767</b>
방광암 · 임파선암	방광암 말기에서 임파선을 타고 전신전이, 항암치료, 방사선치료 한계방광적출, 1개월시한셀라케어 1년 복용, 암세포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의사진단. <b>나카지마성(일본 군마계 다카사키) 080-3556-1951</b>
간에 생긴 종양	셀라케어 6개월 복용후 없어짐. 참고로 고바야시 어머니가 약사임. <b>고바야시(32세, 일본 요코하마)</b>
녹내장	오래된 녹내장으로 고생중에 셀라 케어 2달 복용후 안과에서 정상으로 검진됨. <b>빅토리아(59세, 일본 동경) 8180-1330-2069</b>
취장	취장에 울룩. 셀라케어 3달 반 복용후 없어졌다고 의사가 진단함. <b>58세 목사 사모님(미국 TX) 972-620-2900</b>
식도염	심한 역류성 식도염으로 고생하다가 셀라케어 복용후 거의 호전됨. 부기, 위장, 변비, 여드름, 피부 모두 효과 봄. <b>이은선(미국 MI) 616-822-4627</b>
간질	16년동안 매일 여러차례의 간질로 인해 전혀 사회에 대한 경험을 못하다가 셀라케어 복용후 건강이 호전되어 결혼도 함. <b>Eunice Park(미국) 213-604-1992</b>
아토피 · 건선	6년동안 심한 아토피로 고생이 심했는데 복용 1개월후부터 피부가 깨끗해지며 잠도 잘지고 키도 많이 커졌고 정신적으로 많이 안정이 되었음. <b>Esther Yang(10세, 미국) 213-215-6991</b>
파킨슨	셀라케어를 파킨슨약(Sinemet)과 병행해서 복용하며 떨리는 증세와 몸의 허약함이 반전되었고 50% 줄 아져 18시간 비행으로 이스라엘 성지순례 다녀옴. <b>John Kim(미국)</b>
심장	의사로부터 심장수술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는분의 권유로 셀라케어 2달 복용후 혈액이 맑아졌고 1년 복용후 수술을 안하게 됨. <b>Mr. Yoon(58세, 미국)</b>
백혈병	직업 간호사로 지내다가 갑자기 백혈병 검진을 받게 되고 셀라케어를 1달 반 복용후 의사로부터 백혈구 정상으로 진단받음. <b>Petra(미국) 708-296-2085</b>
반신불수 · 욕창	10년이 넘도록 혼자서 대소변이 불가능했으나, 셀라케어 3일 복용후 아들도 알아보고 복용 6달 후부터 몰라보게 좋아져 조금씩 걸음. <b>박경숙 (82세, 미국)</b>
전립선암 · 부정맥	소변 힘들고 방에도 7번씩 소변을 보았으며, 심한 부정맥으로 고생하였음. 셀라케어 2달 복용후 많이 호전되었으며 혈액검사 결과가 계속 좋게 나옴. <b>Tomas Park (92세, 미국)</b>
심한엘러지 · 하지정맥	코막힘과 콧물로 밤을 세우는 고통 중 셀라케어 3일 복용후 호전. 심한 심장압박과 하지정맥까지도 호전됨. <b>정수지(61세, 미국) 323-774-1138</b>
비만 · 우울증 · 아노증	여러서부터 심한비만으로 11세에 체중이 190LB였으나 셀라케어 2달 복용후 살이 빠지기 시작, 현재는 130LB로 유지됨. <b>Sam Yang(4세, 미국)</b>
자가 면역 질환	회귀병으로 부종, 부분적인 감각상실, 지속적인 중기, 결국은 폐가 굳어지는 불치병으로 셀라케어 3일 복용후 혈액수치가 정상으로 나오고 1달 복용후 정상 판정받음. <b>Mrs. Kwak(미국)</b>
방광암 · 전립선	방광암 진단을 받고 셀라케어 6개월 복용후 깨끗해졌다고 함. <b>토요타 이찌로(일본 후지오카) 0903-146-0007</b>
약물중독 · 우울증	햇빛재단(미국) 오네시모 선교센터(미국)
강아지 백혈병 · 피부병	강아지가 백혈병과 피부병에 고생 하던중 셀라케어 단 2회 먹인후 치료 필요없게 됨. <b>김인숙 213-760-5699</b>

### 건강과 성경 이야기 56

건강하게 사시려면 소화기 기관인 소장과 대장 중에서 어느곳이 더 중요할까요 라고 묻는다면 저는 소장이라고 답 하겠고, 그럼 어느곳이 더 많은 질병에 걸릴까요 라고 묻는다면 대장이라고 답 하겠습니다. 소화기 관을 크게 나누어 보면 위장은 음식물을 몇시간 저장하면서 숙성시키는 곳이며, 약 8미터가 되는 소장은 숙성된 음식물이 지나가게 하면서 몸에 필요한 각종 영양분을 빨아드리는 곳이며, 약 1.5미터가량이 되는 대장은 소장을 통과한 음식물의 찌꺼기를 몸밖으로 버리기 전에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수분과 영양분을 빨아들이는 곳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변비가 있다는 것은 소장과 대장이 잘 움직이지 않고, 계속해서 음식물의 찌꺼기가 쌓이고, 썩고해서 풀립이 생기고 그것이 악성으로 변하여 암이 된다는 것인데, 어떻게하면 만병의 근원이라고 할수있는 변비를 해결할수 있는지에 대하여 성경말씀을 잠시 살펴보신후에 알아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사기19장부터 21장의 내용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인에게 적이 있었는데, 다른남자와 바람이 나 도망을 가서 아버지 집에서 지내게 되었는데, 첩의 남편인 레위인이 첩장인에게 찾아가서 좋은 관계를 회복하여 첩을 데리고 돌아오는 중에 베냐민의 자손들이 사는 지방에서 잠을 청하게 되었는데, 그곳에 사는 이방민족의 불랑베들이 첩을 강간하고 죽여서, 이 원한을 갖고자하여 이스라엘의 각 지파에게 이 사실을 알리게되고 일이 크게되어 전쟁까지 됩니다. 베냐민지파도 자기들의 땅에서 다른 민족이 저지른 만행이므로 잘 해결 할 수있었는데, 결국에는 첩 강간치사 사건이 동족상잔의 전쟁으로 발달하여 6만 5000명이 죽는일이 발생합니다. 19장 1절로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 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우거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취하였다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 아비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낄낄의 날을 보내 매 그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히 말하고 그를 데리고오자 하여 하인 하나와 나귀 두필을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비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환영하라 8절로 이렇게 화해하고 두 사람이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17절**

무료건강상담 문의 213-435-9600

셀라케어 제품은 유태인 코셔인증의 고급 유기농 원료로 만든 미국제품으로 미국 FDA인증의 GMP생산물 입니다. [www.sellacare.com](http://www.sellacare.com)

본사(LA)	213.435.9600	LA벌론 마틴약국	213.382.9718	플러튼 홀쇼핑	714.496.7887	뉴욕,뉴저지	201.983.8333
시온약국	213.344.9730	LA벌론 갤러리아마켓약국	213.388.4100	에나하임	714.469.5809	시애틀	206.331.6655
LA 아드모아약국	213.385.2135	가주건강종합백화점	213.388.0091	다이아몬드바 JJ 약국	909.595.4003	씨애틀 (건강마을)	206.229.5466
LA 한국마켓약국	323.464.3925	LA 5가버질 그랜드약국	213.380.5103	얼바인	949.330.9009	센루이스,캔사스	314.570.9629
LA 베스트약국	213.385.9926	가디나	714.351.0440	H 마트 내 H 헬스 (다이아몬드바)	909.594.6370	하와이(생약촌)	808.947.8086
우리약국 (우리종합병원내)	213.384.6323	글렌데일 한국마켓약국	818.637.7708	랜초쿠카몽가	909.987.9500	시카고 알바니약국	847.699.1511
에스약국	323.733.7788	밸리	818.642.8223	H 마트 내 H 헬스 (얼바인)	949.251.0193	시카고 서울마켓 (헬렌)	224.406.0337
올림픽갤러리아마켓약국	323.733.7200	밸리 소망 약국	818.832.2757	놀렉 H 마트 리빙헬스	562.402.8859	조지아 (발아건강식품)	770.457.1717
LA 다운타운	213.798.3333	오렌지카운티	213.247.2244	파이오니어약국 (세리토스)	562.402.6972	텍사스 (로얄백화점)	972.620.2900
LA시온마켓마손약국	213.739.3030	부에나팍 지류촌약국 (H마트 내)	714.228.9212	세리토스 그린라이프	562.402.6970	플로리다/NC/SC	770.457.1717
LA 6가 버질약국	213.384.1200	가든그로브 건강마을	714.636.2588	그린랜드 건강헬스 (그린마켓 내)	626.839.2868	캐나다	604.872.1669
LA 사랑방	213.351.9552	시온마켓 내 시온헬스	714.730.2707	로렌하이츠	626.912.5727	세크라멘토/아리조나	602.332.6492
LA내처영양센터	213.739.8874	플러튼 내처영양센터	714.690.0120	토랜스 한남체인(건강마을)	310.619.7758		
뉴서울호텔 (필달)	213.386.5310	플러튼 베스트케어약국	714.670.7979	토랜스	213.268.0844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요15:7)



# 미 연방 동성결혼 합법화 저지 위해 교계가 앞장서자

### 6월 12일에서 6월 말 사이, 연방대법원 마지막 판결만 남아



미국에서는 동성결혼 합법화가 이미 37개 주에서는 인정받고 13개 주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그런데 그 나머지 주에서도 동성결혼을 합법화 시키고자 하는 움직임에 대한 미 연방대법원의 마지막 결정이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다.

동성결혼 합법화 지지, 또는 반대를 위한 연방대법원 판결이 6월 12일에서 6월 말 사이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한다.

그래서 동성결혼 합법화 반대를

위해 미 전역의 한인 이민교회가 연합하여 저지 기도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곳 캘리포니아 지역을 중심으로 최찬영 선교사, 박희민 목사, 송정명 목사를 자문위원으로 하고, 한기홍 목사(미기총 대표, 은혜한인교회)를 대표로 하여 TVNEXT.ORG를 비롯 크고 작은 교계 단체 및 교회가 연합하여 '물맷돌 40일 특별기도운동'을 적극적으로 활발히 벌이고 있다.

이 기도운동은 6월 10일 현재 38일째 진행 중이다. 미 연방대법원 판결 예정일인 6월 12일을 기준으로 40일 연합 기도작전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거의 모든 교회들이 이 물맷돌 기도운동에 동참하며 중보기도의 끈을 꼭 붙잡고 있다.

이미 유럽은 동성결혼법이 벌써 통과된 나라가 많다. 세계적으로 동성애자 결혼을 법적으로 허용한 국가는 다음과 같다. 네덜란드(2000), 벨기에(2003), 캐나다, 스페인

(2005), 남아프리카공화국(2006), 노르웨이, 스웨덴(2009), 포르투갈, 아이슬란드, 아르헨티나(2010), 프랑스, 브라질, 우루과이, 뉴질랜드(2013), 영국(2014), 미국(2015)

미국은 1996년 하와이 주에서 동성 커플을 합법적으로 인정하기 시작하여, 2004년에는 메사추세츠 주 대법원에서 동성결혼은 완전한 결혼으로 인정했다. 그리고 드디어 6월 12일에서 6월 말 사이에 미 전 지역에서 동성결혼 합법화를 위한 미 연방대법원의 마지막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현재 미 연방대법원 9명의 판사들은 미 전역에서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것이 정당하지 아닌지에 대한 역사적인 결정을 앞두고 뜨거운 논쟁을 벌이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결정권을 갖고 있는 그 9명의 판사들 중 동성결혼 지

지자가 4명, 반대자가 4명, 그리고 중도자가 1명이라는 데 있다.

따라서 남은 시간동안 우리 한인 교회들은 계속 하나가 되어 우리 자녀들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미국에서의 동성결혼 합법화 저지를 위한 기도운동에 참여해야 할 것이다.

만일 동성결혼이 미국 전역으로 합법화 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상상 그 이상으로 심각해질 것이다. 가족 체계가 완전히 무너질 뿐만 아니라, 의학적으로도 엄청난 재앙이 더 빠른 속도로 퍼져갈 것이다. 근친상간, 동성결혼을 넘어, 이제는 견잡을 수 없는 수간 문제까지 표면화되면서 인류를 파멸의 길로 몰아 갈 것임이 틀림없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동성결혼 합법화 저지를 위한 기도운동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

이영인 기자

## “국가의 기초 ‘가정’ 무너뜨리는 동성애 규탄, 퀴어문화축제 반대”

### 퀴어문화축제 앞서 ‘한국교회 대(大) 연합기도회 및 국민대회’ 열려

지난 9일 오후 6시부터 서울 시청 광장에서 동성애자들의 ‘퀴어문화축제’ 개막식이 예정대로 강행되면서 기독교단체 및 교회, 시민단체들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서울 시청 앞 덕수궁 광장에서 ‘한국교회 대(大) 연합기도회 및 국민대회’를 개최했다.

동성애 차별금지법 및 퀴어문화축제를 반대하고, 바른 성문화 확산, 한국교회의 회개와 개혁 등을 목적으로 열린 연합집회에는 20여 개 교단협의회, 기독교연합회, 시민단체 관계자와 교회 성도 등 전국 각지에서 모인 3천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피땀 흘려 세운 나라 동성애로 무너진다’, ‘동성애 가까이엔 AIDS가 있다’, ‘동성애는 인권이 아니다’, ‘동성애 지지하는 나쁜 인권헌장 폐기하라’ 등 문구가 적힌 피켓과 플래카드 등을 들고 인원에 비해 좁은 장소에서도 질서정연하게 집회에 참여했다.

이날 신정희 목사(세계무디부흥사회 총재)는 ‘우리는 왜 동성애를 막아야 하는가?’(롬1:26-27)를 주제로 말씀을 선포했다.

신 목사는 “어느 날 여러분의 아들이 남자를 데리고 와서 결혼하겠다고 하면 그를 며느리로, 딸이 여자를 데리고 와서 결혼하겠다고 하면 그를 사위로 삼을 수 있겠느냐”고 질문하며 “미국, 영국 등에서는 가상

이 아닌 현재 일어나는 일이며, 실제로 한국에서도 남자와 남자가 결혼해 가정을 이뤘다”며 동성애 확산의 심각성을 알렸다. 신 목사는 동성애를 막아야 하는 이유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가정을 이루도록 하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죄일 뿐 아니라, 가정을 파괴하고 청소년들의 성 정체성 혼란 및 정서 문제, 에이즈 전염 등을 일으켜 매우 유해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신정희 목사는 또 “동성애는 사회를 병들게 한다”며 “동성애는 에이즈 확산의 위험을 높이며, 국가는 에이즈 환자 1인당 평균 5억 원 이상의 치료비를 국민의 혈세로 지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교회가 모여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성애를 막지 않으면 나라 전체가 병들게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라며 동성애를 방관하지 말고 적극 나서서 막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성 소수자들의 인권 보호’라는 명분으로 서울시가 추진하는 시민인권헌장과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성적 지향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차별금지법’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차별금지법에 따르면 목회자가 교회에서 ‘동성애가 비성경적이며 죄’라고 설교하



9일 퀴어문화축제 개막식에 앞서 서울 시청 앞 대한문 광장에서 한국교회 대(大) 연합기도회 및 국민대회가 열렸다. 이날 참석자들이 동성애 반대 피켓과 플래카드를 들고 행사에 참여하고 있다.

면 2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을 물어야 한다”며 “영국, 미국 35개 주에서는 이 같은 법을 막지 못하고 통과시켜, 동성결혼 주례를 서지 않은 목사는 법에 따라 처벌 당한다. 우리도 이 법을 막지 못하면 한국교회 목사도 동성애자 주례를 서야 할 것”이라며 경각심을 일깨웠다.

그는 “마지막으로 동성애는 죄악이지만, 동성애자들이 동성애에서 벗어나 회개하고 새사람이 되도록 한국교회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그들을 너무 미워해서도 안 되고 정죄해서도 안 된다”고 당부했다.

그는 “한국교회가 동성애를 끊고 돌아선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랑으

로 품고, 동성애자들이 바른 길로 가도록 도와야 할 것”이라며 “그리하여 사회가 밝아지고 대한민국이 살기 좋은 나라가 되도록 여러분이 기도하고 도와달라”고 말했다.

바로 이어진 규탄대회에서는 동성애 반대를 비롯해 동성애를 이용하여 상업적,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는 기업이나 정치가, 인권을 앞세워 동성애를 미화시키는 인권 사상가들, 동성애 조장 및 미화, 확산에 참여한 박원순 서울시장 등을 규탄하고, 교회가 잘못된 성 문화를 바로 잡는 일에 앞장설 것을 결의했다.

이후 전국학부모연합이 주관한 3부 ‘국민대회’와 건강한 사회를 위한 국민연대가 주관한 4부 ‘문화공

연’, 오후 5시 30분부터 저녁 늦게까지는 예정통합 동성애 반대 비상대책위원회가 주관한 5부 예배 및 규탄집회가 열렸다.

한편, 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는 9일 서울광장에서 진행한 개막식을 스태프 등 최소 인원으로 축소 개최하고, 이를 온라인으로 생중계했다. 하지만 오는 6월 28일에는 서울광장에서 동성애자들이 대규모로 참여하는 퀴어 퍼레이드를 계획대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기독교 단체 및 시민 단체들도 28일 오후 3시 시청광장 앞 덕수궁 정문(대한문)에서 동성애 저지를 위한 ‘한국교회 연합예배’를 드린다.

이지희 기자

앞서는 젊은 스타일이 살아있는 곳

# 헤어 칼라 전문점

마이스타일 리스트 미용실에서 컷트하시는 모든 분께 헤어 칼라를 파격적인 가격에 해드립니다.

**헤어 칼라**  
\$30 up \$10 up

\* 단, 칼라만 하시면 \$30.0

**매직스트레이트**  
\$100 up

프로페셔널-웰라 제품만 사용합니다  
광고에 사용한 모델의 헤어 칼라는 마이스타일 리스트 미용실에서 사용하는 웰라 제품으로 칼라한 실제 사진들입니다.

**WELLA SEBASTIAN**

앞서는 멋쟁이들이 찾는 곳

## mystylist

301 S. Western Ave. Suite 110 L.A., CA 90020 Tel: 213-739-1022

• 영업시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9:00 AM ~ 8:00 PM

**남자 헤어컷 \$8**

매주 목요일에는 남자 헤어컷을 \$8에 해드립니다. 미리 예약하시는 분에만 한함. \* 헤어 칼라 발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편리한 위치-넓은 지하 주차장

**웨스턴+3가 코너**





북한 동포들의 구원을 위한 '2015 통곡기도회 기도행진'이 지난 5월 29일 베다니장로교회에서 열렸다.

### “주여 북한 동포를 구원하소서!”

#### 북한 동포 구원 위한 '2015 통곡기도회' 시작돼

북한 동포들의 구원을 위한 '2015 통곡기도회 기도행진'이 지난 5월 29일 베다니장로교회(담임 최병호 목사)에서 열렸다.

그날까지선교연합(KCC-UTD, 국제대표 손인식 목사)과 애틀랜타한인교회협의회(회장 한병철 목사)가 공동 주관한 이번 행사는 ▲분단 70년이 되는 올해 통일 날이 임하도록 ▲한국과 해외의 교회들이 통곡하며 기도하도록 등의 기도제목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기도회에서 손인식 목사는 “백악관을 포함해 세계 곳곳에 ‘에스터’와 같은 사람이 많다. 에스터가 왕비가 되어 유대 민족을 구원하게 된 것은 에스터 뒤에 모르드개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 세대는 에스터를 움직일 모르드개가 필요하다. 우리 모두 북한 동포들을 위한 모르드개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손 목사는 “유대 민족이 바벨론 포로 생활로부터 해방된 것도 70년 만이고, 동구 소련 공산정권이 무너지는 것도 70년 만이고, 한반도가 분단된 지도 올해로 70년이다. 조국의 통일은 독일처럼 반드시 기도를 통한 평화적 통일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기도 운동은 필수이다. 1982년, 독일 라이프치히 소재 니콜라이교회에서 50여 명이 시작한 동서독 통일을 위한 통곡기도회가 전국적인 기

도회로 커졌다. 결국 1989년 분단 44년 만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통일되는 축복을 내려 주셨다. 우리 역시 니콜라이교회와 같이 통곡기도의 횃불을 일으킬 길 원한다. 우리 교계가 연합하여 조국통일의 그날을 앞당겨야 할 것이다”고 힘주어 당부했다.

이어서 진행된 기도 시간, 첫 번째로 한병철 목사가 나서서 “우리 모두 옷을 찢는 기도가 아니라 마음을 찢는 간절한 기도를 하자”며 기도를 인도했다.

두 번째로 나선 최봉수 목사(슈가로 프한인교회)는 ‘북한의 지하성도들을 구원하소서, 북한 땅에 교회들이 재건되게 하소서’, 세 번째로 나선 송상철 목사(새한장로교회)는 ‘전쟁 없는 통일을 주소서, 남과 북의 교회들이 합하여 제사장 민족이 되게 하소서’, 네 번째로 나선 정윤영 목사(하은교회)는 ‘통곡기도의 불길인 기도운동을 이루게 하소서’, 마지막으로 나선 손인식 목사는 ‘통곡기도 확산이 한국교회를 살려내게 하소서’라는 제목을 놓고 각각 기도회를 인도하며 간절히 기도했다.

이날 기도회 중간 중간에는 관련 동영상들이 상영돼 북한의 실상과 기도운동의 의미를 홍보했으며 탈북자 간증과 탈북 피아니스트 김철웅 교수 초청 특별연주 시간이 진행되기도 했다.

윤수영 기자



지난 제2회 GSM 세계선교대회를 위해 세계 각국에서 모인 선교사들

### 제3회 GSM 세계선교대회 열린다

#### 7월 26일-8월 4일, 세계 선교 현황 나누고 선교 방향 제시

전세계 65개국의 선교사역을 지원하는 GSM 선한목사선교회(대표 황선규 선교사, Good Shepherd Mission, 이하 GSM)가 오는 7월 26일부터 8월 4일까지 사백 컨퍼런스 센터에서 2015년 세계선교대회 및 선교사 가족수양회를 개최한다.

세계선교대회 및 선교사 가족수양회는 전세계에 파송돼 있는 GSM 선교사들과 가족들이 모이는 매우 뜻깊은 시간으로, 세계 선교의 현황과 사역의 발전 방안을 나누고 미래 선교 방향을 정립하는 시간으로 진행된다.

GMS 대표 황선규 선교사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심 가운데 지금까지 전 세계, 각 지역의 최전방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들을 섬겨왔다”며 “올해도 2015년 GSM 세계선교대회 및 선교사 가족수양회를 통해 주 안에서 사랑과 은혜를 나누며 힘을 누리고, 사역 발전에 도전 받는 시간으로 진행되길 바란다”고 초대 의 말을 전했다.

세계선교대회는 총회와 선교사 보고회, 선교 특강과 전세계 각국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들의 생생한 사역 간증 후 선교 확대를 위한 비전을 공유한다. 또한 워싱턴주와 밴쿠버 관광지에서 휴식하며 사역을 위한 재충전의 기회를 가질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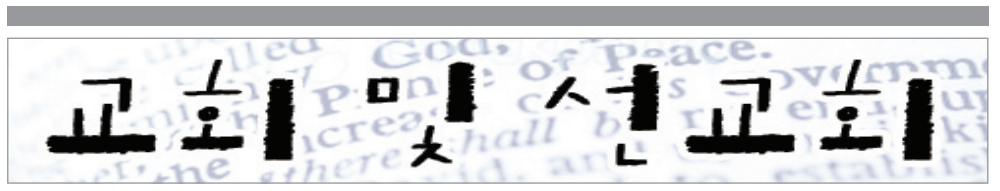
김 브라이언 기자

GSM은 “올해 선교대회 및 가족 수양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세계 선교와 GSM 선교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를 가능하는 매우 중요한 자리가 될 것”이라며 GSM 선교사들과 후원자들의 참석을 당부했다.

한편, GSM 선교회는 1대 1 동역 선교를 통해 100달러가 꼭 필요한 선교지와 후원자를 연결시켜주는 초교과 선교단체로 2002년 7월 1일 15명의 선교사 후원으로 시작하여 지금까지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2021년까지 GSM 3000(선교사 1000명 후원자 2000명)을 목표로 선교의 확장을 도모하고 있다.

GSM 선교회를 창립한 황선규 선교사는 시애틀 중앙침례교회에서 담임 목회하던 가운데 폐암 말기 진단을 받고 남은 생을 선교에 바치기로 결단해, 지난 2002년 은퇴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선교 일선 선교사들과 후방 선교지원을 연결하는 교량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

GSM 2015년 세계선교대회 및 선교사 가족수양회 참석 문의는 다음과 같다. 미국지부 서성경(행사/회계 담당) 206-321-7404 / robiseo@hotmail.com 한국지부 임수미(사무국장) 010-3504-1098 / cutymippy@hanmail.net



<p><b>LA 지역</b></p> <p>1부예배 오전 8:00 EM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20(월-금) 점심예배 오후 2:22 오전 6:20(토) 주일·버림중학교 / 토요일·7(외)버몬트 크나-100 New Hampshire 주중새벽 LASAI(대한교회)7(외)라파엘트 크나-620 S. La Fayette Park</p> <p><b>LA 사랑의교회</b> 평신도를 깨우고, 이민2세를 책임지며, 이민가정을 섬기며, 선교영향을 증진하는 교회 버림중학교 (1기)와 버몬트 크나-152 N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4 T. (213) 386-2233 / www.LASarang.com</p> <p><b>김기섭 담임목사</b></p>	<p>주일예배 오전 11:2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주일학교 오전 11:20 토요일 새벽기도회 오전 6:00 학생 청년부 예배 오전 11:20</p> <p><b>LA 온하늘교회</b> 1540 S. St Andrews Pl. Los Angeles, Ca 90019 T.(818)983-9024</p> <p><b>연재선 담임목사</b></p>
<p>주일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 - 토) 수요기도회 오후 7:30</p> <p><b>LA 선교교회</b> 내 직장을 불하라, 믿음으로 성령하고, 사랑으로 하나님께, 소망중에 기뻐하라 3511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19 T.(213) 435-0380, (213) 435-0094 / www.missionla.org</p> <p><b>박성도 담임목사</b></p>	<p>1부예배 오전 9:00 어린아이부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Youth 예배 오전 11:00 토요일합세배 오전 6:20</p> <p><b>갈릴리선교회</b> 함께웃고 함께우는 공동체 2212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35-6412 / gmcchurhc.com</p> <p><b>한현영 담임목사</b></p>
<p>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 구역모임 오후 7:30 오류 찬양예배 오후 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p> <p><b>구인성장교회</b> 실천하는/전도하는/원하는 신앙 공동체 4545 W.Washington Blvd. LA, CA 90016 T.(323)428-7878/F.(323)932-0788 / kuinholly@hanmail.net</p> <p><b>현연섭 담임목사</b></p>	<p>주일 오후 4시 새벽 오전 5:30 (월-토) 저녁 오후 7:30 (화,목,금)</p> <p><b>엘리아 김 담임목사</b></p> <p><b>나눔과 섬김의 교회</b> 세상속에 나이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978 S. Hoover St.#203 LA 90006 T. (213) 272-6031</p>
<p>1부예배 오전 7:40 EM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5:30 (월-토) 3부예배 오전 11:45 수요일예배 오후 7:30</p> <p><b>나성순복음교회</b>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세운 뜻을 이루아가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p> <p><b>진유철 담임목사</b></p>	<p>주일예배 1부 오전 8: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예배 2부 오전 9:3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5:30 주일예배 3부 오전 11:00</p> <p><b>한기형 담임목사</b></p> <p><b>나성동산교회</b>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 2525 W 9th St. Los Angeles, CA 90006 T.(213) 487-3920</p>
<p>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EM 오후 1:00 한이찬년부 오후 1:30</p> <p><b>나성서부교회</b> 평안하여 든든히 사는 교회 1218 S. Fairfax Ave. LA CA 90019 T. (323)939-7323 / www.lakwpc.org</p> <p><b>서건오 담임목사</b></p>	<p>1부예배 오전 7:30 성인 EM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11:00 한이찬년예배 오후 2:00 3부예배 오후 1:00 찬양예배 오후 3: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화-토 오전 6시</p> <p><b>나성열린문교회</b> 생명과 부흥이 풍성한 교회 3251 W.6th St, LA, CA 90020 T.(213) 383-2600, (213) 383-2602 / laopendoor.org</p> <p><b>박현성 담임목사</b></p>
<p>1부예배 오전 8:00 대학부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1:00 성경공부 저녁 7:30(목) 유초등부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중고등부 오전 10:45 6:00(토)</p> <p><b>나성제일교회</b> 소망과 사랑이 넘치는 행복의 교회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T. (213) 388-7101</p> <p><b>김광삼 담임목사</b></p>	<p>1부예배 오전 8: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1부 오전 5:30 성경공부 오후 7:30 (화) 2부 오전 6:30 (월-금) 오전 10:30 (수) 오전 6:30 (토)</p> <p><b>남가주광염교회</b> 말씀과 기도로 비스하는 은혜공동체 1153 Valencia st. Los Angeles, CA 90015 T.(213)598-0191</p> <p><b>정우성 담임목사</b></p>
<p>1부예배 오전 9:00 주일학교 오후 1:00 2부예배 오후 11:45 새벽예배 오전 6:00 (화-토) 성경공부 주일오후 2:00</p> <p><b>남가주리디머교회</b>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1938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737-3538 / www.laredeemer.com</p> <p><b>김요섭 담임목사</b></p>	<p>주일예배 오전 11:00 E.M.예배 주일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1:45 삼일기도회 수요일 오후 7:30</p> <p><b>이영 담임목사</b></p> <p><b>라성빌라델비아교회</b> 하나님 중심 생활/ 말씀 중심 생활/ 교회 중심 생활 3240 Wilshire Blvd. #265 Los Angeles, CA 90010 T. (714) 319-2234</p>
<p>주일예배 오전 9:00 EM예배 주일 오후 11:00 찬양예배 오전 11:00 목요일찬양예배(목요일) 오후 7시 30분 교회학교 주일 오전 9:00</p> <p><b>산타모니카한인교회</b> 죽도록 섬기는 교회 1520 Pearl St., Santa Monica, CA 90405 T. (310)502-9999 / www.smkc.us</p> <p><b>김경렬 담임목사</b></p>	<p>영아예배: 주일오전 10:30 새벽예배: 화-금 오전 5:30 토 오전 6:30 성경공부: 주일오전 10:30 토 오전 6:30 주일예배: 오전 11:30 금요일예배: 오후 7:30</p> <p><b>신현호 담임목사</b></p> <p><b>새하늘 교회</b> 2909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57 Tel. (213) 500-3721 / www.Newheavenchurch.com</p>
<p>1부예배 오전 09: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금) EM예배 오전 10:00</p> <p><b>썬사이드교회</b> 하나님을 기쁘게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 예수 안에서 행복함 공동체 1183 S. Hoover St., Los Angeles, CA 90006 T. (213) 389-0691 / F. (213) 389-0694</p> <p><b>조인수 담임목사</b></p>	<p>1부예배 오전 8:00 영아예배 오전 10: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매일 오전 6:00</p> <p><b>김세환 담임목사</b></p> <p><b>엘에이연합감리교회</b> 100년역사의 미국 본토에 세워진 최초의 한인교회 7400 Osage Ave. Los Angeles, CA 90045 T. (310) 645-3698 / F. (310) 645-3060</p>
<p>1부예배 오전 8:30 금요일기도회 오후 9: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5:30 3부예배 오전 1:30</p> <p><b>올림픽장로교회</b> 세상을 구원하고 행복을 주는 교회 같은말, 마음, 꿈, 열매 3119 W. 6th St. Los Angeles, CA 90020 T.(213)387-1700/C.(213)500-4737 / olympic-church.org</p> <p><b>정장수 담임목사</b></p>	<p>1부예배 오전 8:00 영아예배 오전 10: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매일 오전 6:00</p> <p><b>김세환 담임목사</b></p> <p><b>요한 선교회</b> gkal44 Yahoo.com Tel: (213) 703-6863 522 N Hobart Blvd Los Angeles CA 90004</p>
<p>1부예배 오전 9:00 금요일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중고등부 오전 11:00 오전 6:00 (토)</p> <p><b>임마누엘선교교회</b> 행복한 성도,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 1818 S. Western Ave., #200 Los Angeles, CA 90006 T. (323) 766-9922 / www.laimch.com</p> <p><b>류종길 담임목사</b></p>	<p>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0: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 (월-토)</p> <p><b>신승훈 담임목사</b></p> <p><b>주님의영광교회</b>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p>
<p>1부예배 오전 9:00 금요일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중고등부 오전 11:00 오전 6:30 (토)</p> <p><b>이명수 담임목사</b></p> <p><b>청운교회</b> 선교에 흐름, 소.친 초.정신의 흐름,바른교회관의 흐름 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 (323) 667-9920</p>	<p>1부예배 오전 8:0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30 EM 2부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교육부 오전 11:30 새벽예배(매일) 오전 5:30</p> <p><b>민중기 담임목사</b></p> <p><b>충현선교교회</b> 블러시(Calling),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 맞선(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818)549-9191/F.(818)549-9199 / choonghyun.org</p>
<p>주일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일찬양예배 오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한글학교주일오전 10: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유초등부 오전 11:00 오전 6:00 (토) 중고등부 오전 11:00</p> <p><b>한마음제자교회</b>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213)321-4433</p> <p><b>곽부환 담임목사</b></p>	<p>1부예배 오전 8:00 금요일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수요일예배 오후 7:30</p> <p><b>강지원 담임목사</b></p> <p><b>한우리장로교회</b>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자유와 회복이 있으며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1932 10th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02-6709</p>



**LA동부, 팜스프링스 지역**

1부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성령집회 오후 8:00  
3부영어예배 오후 1:00 금요성경공부 오후 8: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이희철** 담임목사

**갯스윌연합교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gw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대학청년부예배 오후 12:50  
2부예배 오전 9:30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3부예배 오전 11:00 (토) 오전 6:00  
4부예배 오후 12:5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고태형** 담임목사

**선한목자장로교회**  
선포하고 가르치는교회

1816 S.Desire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626)965-3443 / F.(626)965-0404 / sunhanchurch.com

1부예배 오전 7: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3부예배 오전 11:45 오전 6:00 (토)

**고승희** 담임목사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1부예배 오전 7:3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15 EM 2부예배 오전 11:45  
3부예배 오전 11:45 수요일침례 오후 7:30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새벽예배 오전(월-금) 5:30 (토) 오전 6:00

**박산철** 담임목사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909)622-2324, F.(909)622-1480 / inland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기도회 오후 9:00  
청대교회 사랑의 나눔터(매주 수) 오전 10:00-11:00

**이훈준** 담임목사

**창대교회**  
하나님께 영광!

173 E.Dumas St., San Bernardino, CA 92408  
T.(909) 388-2940

주일에배 오전 9시 (지성전)  
오전 11시 (본성전)

본성전 : 75580 E Ramon Road, Thousand Palms, CA92276  
지성전 : 66700 E 5th St. Desert Hot Springs, CA92240

**최승목** 담임목사

**팜스프링스한인감리교회**  
2015년 표어 : 선과 악인 모두에게 빛을 비추는 교회(마5: 45)  
1. 민족을 넘어서 2. 신앙을 넘어서 3. 국가를 넘어서

T. (760) 636-2675 / palmssprings.onmam.com

1부예배 오전 7: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2부예배 오전 10:00 오전 6:00 (토)  
3부예배 오전 11:45 금요일기도회 오후 8:00

**양성필** 담임목사

**하나로커뮤니티교회**  
하나님의 꿈이 있는 공동체

18616 E. Romirer St., La Puente, CA 91744  
T. (626) 912-6600 / www.hanarochurch.org

주일예배(주일) 오전 11:30 새벽기도(토) 오전 06:00  
교회학교(주일) 오전 11:30 토요일(일) 오전 06:00  
문화교실(주일) 오후 01:30 성경연구(수) 오후 07:30

**백재준** 담임목사

**행복한주님의교회**  
우리는 주님의 교회, 주님의 군대, 주님의 신부입니다

7690 Archibald Ave. Rancho Cucamonga, CA 91730  
T. (626) 710-0798 / todad7@hotmail.com

**사우스베이 지역**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30 금요일기도회 오후 11:00  
다민족 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이호민** 담임목사

**가디나선교회**

1044 West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213)365-9188

주일예배 오전 11:45  
주일학교 오후 12:00  
성경공부 주일오후: 2: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45

**김영구** 담임목사

**나눔 장로교회**  
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넘치는 교회

3521 Lomita Blvd #202 Torrance, Ca 90505  
T. (310) 404-6219

1부예배 오전 8:00 1부예배(EM)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EM) 오후 1:15  
3부영양예배 오후 2:00 중·고등부예배(EM)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 중보기도회 오후 9-11시

**정상용** 담임목사

**나성금란연합감리교회**

3153 W.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310) 973-5106 / F. (310) 973-7429

1부예배 오전 8:00 EM(화) 오후 1:30  
2부예배 오전 9:30 한이청년부 오후 2:15  
3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매일) 오전 6:00

**김준식** 담임목사

**남가주살롬교회**  
Shalom Church of Southern California

20050 S. Vermont Ave. Torrance, CA 90502  
T.(310)787-1004 shalomch.org

1부예배 오전 8:00 EM 1부 9:30/ 2부 11:00  
2부예배 오전 9:30 중·고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권영국** 담임목사

**대흥장로교회**  
땅끝까지 내 증인이되라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1부예배 오전 9:00 새벽기도 오전 5:15 (화-금)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유/초등부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중/고등부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성가대연습 오전 10:20

**서보천** 담임목사

**둘로스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삼는 교회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951-3153 / doulos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청년부예배EM 오후 1: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 (화-토)

**강신권** 담임목사

**세계성경장로교회**  
말씀과 함께 세상속으로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424) 257-8169 / F. (424)257-8170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10: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20

**박성규** 담임목사

**주님세운교회**  
Vision 7300으로 지역사회와 세계복음화에 힘쓰는 교회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T. (310) 325-4020 / F. (310) 325-4025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 (화-토)  
3부예배 오후 2:00

**이종용** 담임목사

**코너스톤교회**  
이망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310)530-4040 / F.(310)530-8400 / cornerstonetn.com

1부예배 오전 8:00 장어우예배 오전 10:00  
2부예배 오전 10:00 Toddler - Youth 오전 5:30  
3부예배 오전 11:30 오전 11:30  
EM(화) 오전 10:00(장년) 새벽예배 월-토 오전 5:30am  
오후 2:00(장년) 수요일예배 오후 8:00  
KM(어) 오후 8:00(장년) 금요일예배 오후 8:00

**김비늘** 담임목사

**토레스 조은교회**  
www.torrancegcc.org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 370-5500 / F. (310) 370-2009

**파사데나, 라크라센타, 라캐나다, 글렌데일, 벨리, 벤추라 지역**

주일 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00  
주일 성경공부/새교우반 새벽예배 오전 7:00 (토) 오후 1:00

**류준영** 담임목사

**글렌데일한인장로교회**  
예수님을 붙잡고, 자라는, 건강한 교회!

4002 Verdugo Rd., Los Angeles, CA 90065  
T. (323) 254-4012 / gkpchurch.com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월-금 오전 5:30  
EM 1부예배 오전 9:30 토 오전 6:00  
2부예배 오전 11:00

**이성현** 담임목사

**드림교회**  
하나님의 꿈을 이뤄 드리는 교회

1305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6  
T. (626) 793-0880 / F. (626) 793-6412

교사예배(주일) 오전 9:45 수요일기도회 오후 7:30  
주일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유초등부(주일) 오전 11:00 구역모임 매일 1회  
중고등부(주일) 오전 11:00 한글학교(토) 오전 10:30

**벤츄라카운터장로교회**  
'예수의 심장'으로 섬기는 교회' (빌 1:8)

737 W. 6th St. Oxnard, CA 93030  
T. (805) 483-7009

주일 대예배 오전 11:20  
영아예배 오전 10: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8:00(토)

**곽덕근** 담임목사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밸리채플 Valley Chapel**  
주일예배 - 오전 8:00 / 9:45  
목요영성예배 - 저녁 7:45  
새벽예배 월-금 5:30, 토 6:00  
195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6 CA 90670

**세리토스채플 Cerritos Chapel**  
주일예배 - 오전 9:30 / 11:30  
목요영성예배 - 저녁 7:45  
13808 Imperial Hwy., Santa Fe Springs, CA 90670

**비전채플 Vision Chapel**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12631 E. Imperial Hwy., #F134  
Santa Fe Springs, CA 90670

**최희** 담임목사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Tel. (818) 363-5887 / www.In-ChristCC.org

EM(화) 오전 10:00 새벽기도 오전 5:30 (월-금)  
스페인어 오전 10:00 오후 6:30 (토)  
한국어 오전 10시 (필로우쉽)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오후 12:00 (본당)

**최호년** 담임목사

**파사데나장로교회**  
새 사람, 새 교회, 새 세상을 열어가는 신앙공동체

585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1  
T. (626) 795-6252 / F. (626) 584-6544

문/서/신/교에 앞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Fax. 213) 402-5136



김정호 목사는 5월 31일 주일예배를 마지막으로 18년간의 애틀란타한인교회 담임목사직을 마감했으며 뉴욕 소재 후러싱제일교회로 부임하게 된다.

**“교회가 건강하고 성숙한 것에 감사”**

김정호 목사, 18년간의 애틀란타한인교회 담임목회 마감해

애틀란타한인교회를 담임했던 김정호 목사의 송별예배가 5월 31일(주일) 오후 4시 다목적실에서 열렸다. 송별예배는 변지혜 집사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한인교회 유스 오케스트라의 연주와 여성중창단의 찬양, 성도들의 감사의 말과 동영상 상영, 감사패 증정, 김정호 목사의 답사 순으로 500여 명의 교인과 목회자들이 참석해 이별을 아쉬워하며 진행됐다.

김정호 목사는 5월 31일 주일예배를 마지막으로 18년간의 담임목사직을 마감했으며 뉴욕 소재 후러싱제일교회로 부임하게 된다. 한편, 애틀란타한인교회는 6월 중에 LA연합감리교회를 담임했던 김세환 목사가 새 담임목사로 부임할 예정이다.

지난 1997년 7월, 담임목사로 부임한 김정호 목사는 두 번에 걸쳐 성전을 증축하는 등 18년동안 이 교회를 부흥시켰다. 김정호 목사는 “지난 18년간 저를 여러분의 삶의 중요한 순간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했고 삶의 모든 순간에 함께 할 수 있었음에 행복했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김 목사는 “교인의 삶에서 무엇이 어렵고 가장 아픈지 안다. 여러분이 아프고 힘들 때마다 가장 성숙하고 지혜로운 모습으로 함께 하려고 노력했다”고 전했다. 김 목사는 “애틀란타한인교회가 건강하고 성숙한 교회가 된 것에 감사하며 이 모든 역할에 동참한 모든 이에게 감사한다”고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윤수영 기자



제10회 사랑의 종 장학금 수여식이 7일 하크네시아교회에서 열렸다.

**“2세들을 빛의 자녀로”**

‘제10회 사랑의종 장학금’ 수여식 은혜롭게 열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성실히 학업에 임하는 이민교회 2세들을 격려하기 위해 시작된 사랑의 종 장학금 수여식이 올해로 10회 째를 맞았다. 사랑의 종 장학재단(Love Bell Mission Foundation)은故 김일현 집사의 생전의 유지를 받들어 선교 기금 및 장학금을 전달할 목적으로 지난 2005년에 설립된 기관으로, WPI Verizon 김창백 대표가 매년 사랑의 종 장학금을 후원하고 있다.

라'(벤전 2:9)는 제복의 설교에서 미국에서 자라나는 2세들의 역할과 사명이 중요함을 강조하는 한편,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귀한 일꾼들로 자라나게 하는 책임이 한인 1세대들에게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전했다. 정도영 목사는 광고를 통해故 김일현 집사의 11주기를 추도하면서 재단이 더욱 발전해 더욱 많은 목회자와 선교사, 유학생, 학생들에게 장학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기도를 요청했다.

7일 하크네시아교회(담임 전광성 목사)에서 열린 장학금 수여식에서는 광민, 김사랑, 김혜진, 박진호, 변종찬, 임예림, 전예지, 정지성, 최지은, 한성욱 학생 등 총 10명에게 각각 1천불의 장학금이 전달됐다.

故 김일현 집사는 강원도 철원에서 출생해 유년 시절을 보내던 때, 늘 들려오던 마을 교회의 종소리를 기억하며 선교사, 신학생, 목회자 및 어려운 환경에 처한 믿음의 자녀들에게 밝은 희망의 종소리를 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랑의 종 선교 장학금(Love Bell Mission Award)을 마련했다.

이날 장학금 수여식은 정도영 목사(서기이사)의 사회로, 박성원 목사(풍성한교회) 기도, 장학생 일동 특별 찬송, 김수태 목사(아린양교회) 설교, 안창의 목사(이사장) 장학금 수여 및 인사말씀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김수태 목사는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

그의 아들인 김창백 집사(뉴저지초대교회)는故 김일현 집사의 유지를 받들어 2005년 사랑의종선교재단을 설립, 매년 우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하고 있다.

**2015 뉴저지 호산나복음화대회**

현재 뉴욕교협(회장 이재덕 목사)이 연중 최대 연합행사인 할렐루야복음화 대회를 3주 앞두고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데, 뉴저지교협(회장 이병준 목사)도 호산나복음화대회의 일정 및 강사를 확정하고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했다.

뉴저지 호산나복음화대회는 7월 29일- 31일까지, 한기흥 목사(은혜한인교회)를 강사로 초청한 가운데 필그림교회(담임 양준길 목사)에서 진행된다. 감사 한기흥 목사는 지난 5월 7일 제 64회 국가기도의 날(National Day of Prayer)에 워싱턴 DC 연방 국회의사당

캐논 홀에서 한인 목회자로는 처음으로 대표기도를 하기도 했다. 한기흥 목사는 올해 3월 뉴욕 프라미스교회에서 진행된 ‘뉴욕과 미국의 부흥을 위한 연합기도대회’에 참석해 동성애 허용 등 미국의 영적 위기상황을 지적하면서 뉴욕과 미국의 영적 각성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전한 바 있다. 뉴저지교협은 지난해부터 기존의 ‘호산나전도대회’ 명칭을 ‘호산나복음화대회’로 변경해 행사 규모를 더욱 크게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대회 강사는 필라델피아 교회 담임 호성기 목사였다.

함영환 기자





예장 합동 경기권역 노회자립위 세미나가 진행되고 있다.

## 예장 합동 교회자립위원회의 우선적 사역

### 총회 내 미자립교회 지원 위한 ‘교회자립지원제도’ 도입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 경기권역노회 교회자립지원위원회 실무 세미나가 4일 새에덴교회(담임 소강석 목사)에서 개최됐다.

이날 총회 교회자립지원제도 설명에 나선 박성규 목사(총회자립위 실명서기)는 “총회 내 미자립교회 목회자의 최저생활비(월 120만 원)를 지원하고, 경제적 필요 충족뿐만 아니라 교회 자립목회 프로그램을 지원할 것”이라며 “마게도냐교회가 예루살렘교회를 도운 것처럼, 미자립교회 지원으로 개교회주의를 넘어선 공공회성이 회복과 소유의 개념을 넘어선 공유의 개념 회복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 목사는 “동시에 이것은 한국교회 부흥의 새로운 전기를 만들 수 있는 것이다”며 “노회와 총회가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어려움에 처한 형제 교회를 돕고, 나아가 한국교회를 살리는 일에 동역하기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박 목사는 “총회 교회자립위원회의 우선적 사역은 ▲미자립교회 성장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미자립교회 자녀 대입 면접 시 대도시 교회 홈스테이 연결 ▲농어촌 직거래 장터 운영 ▲도시 교회 성도 고향 교회 방문, 중장기 추진사

역은 ▲미자립교회 목회자 의료비, 자녀교육비 지원 ▲미자립교회 자녀를 위한 학사관 운영 ▲은퇴 후 지원 ▲미자립교회 간 통폐합 ▲전략적 거점에 위치한 미자립교회 지원 지속”이라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는 1부 예배와 2부 세미나 순서로 진행됐다. 1부 예배는 정중현 목사(영도교회)의 사회로 진행된 가운데 서병호 장로(총회자립위 회계)가 기도, 소강석 목사(총회자립위 경기권역 위원장)가 설교, 박무용 목사(총회자립위 위원장)의 축도로 드렸다.

2부 세미나는 권재호 목사(총회자립위 서기)의 사회로, 최문철 장로(총회자립위 실행위원)의 기도, 박성규 목사의 설명, 황윤도 목사(총회 사무행정부장)의 노회 교회자립위 운영 실무교육 순서로 진행됐다.

예배소서 1장 22~23절을 본문으로 설교를 전한 소강석 목사는 “한국교회는 지금 목회 생태계 자체가 파괴되고 성장동력이 멈추는 엄청난 위기를 겪고 있다”며 “이제 우리는 부흥의 터보엔진을 달고, 연합하여 미자립교회를 돕고,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으로써 만물을 중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한 여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하석수 기자



기장 사회선교정책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 기장, “사회선교, 종교인 과제” 등 방향 모색

### 김경재 목사 등 발표, ‘생명’을 최고 가치로 각성해야

한국기독교장로회(기장) 제99회 총회 사회선교정책간담회가 제100회 총회를 맞이하며 기장이 나아가야 할 사회선교 방향에 대해 4일 오후 서울 한국기독교교회관에서 열렸다.

기장 배태진 총무는 이날 간담회에 대해 “교단의 사회선교에 대한 성찰과 방향 설정은 매우 절실한 과제”라며 “때문에 우리는 오늘날 잊고 있었던 교회의 본질과 역할에 대한 제대로 된 ‘자리매김’을 더욱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해야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간담회는 기도회를 시작으로, 주제발표와 두 번의 소발제, 현안발제 및 사업공유·토론으로 이어졌다.

김경재 목사(한신대 명예교수)가 주제 발표, 김경호 목사(총회 교사위원장), 정삼시 목사(총회 평동위원장)가 소발제, 최형묵 목사(총회 교사위 종교인과제소위원장)가 현안발제를 각각 맡았다.

먼저 ‘근본이 바로 서면 길이 생긴다 - 제100회 총회를 맞아 기장이 나아가야 할 사회선교 방향’을 제목으로 발표한 김경재 목사는 “물량적 성장주의, 공격적 승리주의, 힘 숭배에 예속한 복종과 보상원리가 현대 한국교회를 병들게 했고, 교회로서의 존재 이유를 상실케 한 최대의 유혹이자 시험이었다”고 했다.

김 목사는 “자본주의적 신자유주의 복합이념”과의 영적 투쟁, 곧 먹느냐 먹히느냐의 가치관 투쟁과 세계관 투쟁에

서 한국교회는 철저히 패배하고 예측되어 ‘하나님의 나라’와 ‘우주적 사랑의 공동체’ 실현의 전위부대로서 위상을 상실했다”며 “이것이 기장의 사회선교가 처한 가장 심각한 문제의 현실인 것”이라고 했다.

소발제자로 나선 김경호 목사는 ‘교단 사회선교 발전을 위한 제안’에서 “기독교 사회운동이 지지부진한 것은 계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라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단이 해외선교사를 파송하듯이 사회선교사 제도를 마련해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고 했다.

두 번째 소발제자 정삼시 목사는 ‘교단 평화통일선교에 대한 제안’을 통해서 “기장은 남북교회 협력과 교류 사업에 선구적 활동을 해왔다”며 “다양한 남북교회 협력과 교류 사업이 필요할 것”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현안발제자로 나선 최형묵 목사는 ‘종교인 과제가 함축하고 있는 쟁점들에 대한 신학적 검토’를 제목으로 발표했다. 최 목사는 “성서에서 어떤 단편적 구절을 통해 오늘날 국가 조세의 의미를 정당화하는 방법은 부적절하다 할 것”이라며 “그보다는 성서가 일관되게 강조하는 공동체의 온전한 보전을 위한 정신에 비춰 오늘의 국가 세금에 대한 태도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진영 기자

## O.C./얼바인 지역

**김철민 장로**  
결혼교실, 사모교실, 부부교실, 아버지교실  
www.GodFamily.com  
www.CMFM.org

**CMF선교회**  
가정을 세우는 CMF Ministries  
3463 1/2 Pumice St., Norwalk, CA 90650  
T: (562) 483-0191 / (714) 493-0191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목상예배 오후 2:30 목요일예배 오후 7:30  
월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화요일예배 오후 7:30 토요일예배 오후 7:30

**앤드류 김 담임목사**

**UBM교회**  
3세대가 함께 성령안에서 자유롭게 예배하는교회  
1531 S. Sinclair St., Anaheim, CA 92806  
Tel: 714-635-6402, Cell: 714-600-7700 www.ubmchurch.com

1부예배 오전 7:30 금요찬양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장애인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영어장년부 오전 9:30, 11:30  
한양대학생연예 오후 2:00 새벽기도회 5:30(월-금) 6:00(토)

**김영길 담임목사**

**감사한인교회**  
사랑받고 사랑하는 교회 전도와 선교에 정성을 다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오병의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2:30  
토요일예배 오전 6:00

**오병의 담임목사**

**건강한 교회**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는 교회  
18523 Arline Ave. Artesia CA 90701  
T: (714) 801-1625 kpcadavid@yahoo.com

1부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나침반 한국학교 주일 오전 9:15  
영 유아부 오전 11:00 EM 대학부 오후 1:30  
유 초등부 오전 11:0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토 6:30

**민경엽 담임목사**

**나침반 교회**  
모이는 교회 흠여지는 교회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 (Lambert & Puente)  
T: (562) 691-0691 F: (562) 691-0698 / nachimban.org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성령집회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한글학교 오후 6:00 (금)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예배 새벽 5:30 (월-금)

**박재만 담임목사**

**남가주순복음교회**  
죽어가는 세상을 성령의 능력으로 살리는 교회  
4552 Lincoln Ave 207, Cypress, CA 90630  
T: (714) 952-0191 / www.socalfgc.com

1부 주일예배 오전 8:00 새벽예배 오전 6:00 분당  
2부 주일예배 오전 10:00 수기도회 저녁 8:00 분당  
3부 주일예배 오후 2:30 금요공부 저녁 8:00 분당

**허귀암 담임목사**

**놀익연합감리교회**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로 세우는 교회  
13000 San Antonio Dr, Norwalk, CA 90650  
T: (562) 802-4959 C: (714) 308-7038 / usa8291@gmail.com

주일예배(KM) 주일 11:00am 금요일예배 7:30pm  
영어예배(EM) 주일 9:00am (매월 두번에 금)  
교육부예배 주일 11:00am 새벽예배 화-금 5:30am  
(영아유치부, 유치부, 중고등부) 토 6:00am

**안창훈 담임목사**

**늘푸른선교회**  
2216 E. South St. Anaheim, CA 92806  
T: (714) 808-9191 / www.missionway.org  
mcc.office.email@gmail.com

주일예배 1부 오전 8:30 주일학교 오전 10:30  
2부 오전 10:30 새벽예배 월-금 새벽 5:30  
3부 오후 12:20 토 새벽 6:20  
4부 오후 2:00(젊은이예배)

**고현중 담임목사**

**디사이플교회**  
17502 Daimler St., Irvine, CA 92614  
T: (949) 502-4923 / www.disciplecc.org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영어예배(GLMC) 주일오후 12:3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수기도회 토요일 저녁 7:30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 5:30 (토) 오전 6:00

**박일룡 담임목사**

**로템장로교회**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는 교회  
1759 W. Broadway Anaheim, CA 92804  
T: (714) 956-7640 / (714) 956-5845 / WWW.ROTHEM.COM

1부예배 오전 8:45 금요 Alpha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오전 6:00 (토)  
EM예배 오전 9:30

**이서 담임목사**

**미주비전교회**  
역동적인 예배가 살아있는 비전공동체  
2536 W. Woodland dr. Anaheim CA 92801  
T: (714) 821-9900, 9901 / visioncc.org

1부예배 오전 7:15 4부 청년예배 오후 1:30  
2부예배 오전 9: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3부예배 오전 11:00 토요일 새벽찬양기도회 새벽 6:00

**김한요 담임목사**

**베델한인교회**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주일: 10:30 AM Sunday School (All ages) 새벽예배 : 5:30 AM (화-금)  
11:45 AM Adult Service  
1:30 PM English Service  
금요일일 : 7:20 PM 성경 66권 특별성경공부

**이승필 담임목사**

**새로운 교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사뮴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생명이 되게 하소서(골로 3:10) 온전하신 분이 무릇 온(지) 분을 위하여(골 2:20)

12432 9th. St. Garden grove, CA 92844  
Mobile: (949) 933-7242  
Saerounchurchus@gmail.com

성경적 목회 신학대학교 학장 정승룡 박사 회장 주혁로 목사  
성경적 목회 교육원 원장 리세영 박사  
사무간사 홍지윤 전도사

**성경적목회연합회**  
"누구든지 성경적 목회에 뜻을 두신 목회자께서는 문의 바랍니다."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0  
Tel. (562) 896-9191, (714) 252-9191

주일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 6:00  
중고등부 오전 11:00  
대학장년부 오후 1:30

**홍성준 담임목사**

**얼바인 한민음교회**  
믿음으로 하나되는 교회  
18182 Culver Dr., Irvine, CA 92612  
T: (949) 769-9628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 오전 9:15 중등부 오전 9:15  
3부 오전 11:30 고등부 오전 11:30  
4부 오후 2:00 한아부 오전 11:30  
KM대학장년부 오후 2:00

**권혁민 담임목사**

**얼바인은누리교회**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 (949) 261-9100 / vision.onnuri.org

주일예배 오후 12:30 김용철 담임목사  
교육부예배 오후 12:30 California Graduate School of Theology 교수

**얼바인중앙교회**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자  
18422 Culver Dr. Irvine CA 92612  
T: (714) 309-7551  
Pastoryckim@yahoo.com

주일 인터넷 생방송듣기 오전 6:30 우대권 담임목사  
주일 예배: 오전 11:30 목요일예배 오후 7:30  
토요일예배 오후 8:30 초등부 목요일예배 오후 7:30

**영광빛복음교회**  
주의 권능, 치료의 광선을 행하고 알리는 교회  
14515 Blaine Ave., Bellflower, CA 90706  
T: (213) 291-5901 / (714) 833-2568 daekwon.org

주일예배 오전 10:45 수요일예배 오후 7:00  
2부예배 오전 12:45 새벽예배 오전 5:30 (화-토)  
금요강해예배 오후 7:30

**김민재 담임목사**

**예진교회**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친구" 공동체  
955 W Imperial Hwy Brea, CA 92821 ECCU Auditorium (Worship Center) T: (714) 788-3677  
18639 Yorba Linda BL Yorba Linda, CA 92886 (교회 사무실)

주일1부예배 오전 8:15 유년부, 초등부예배 오전 11:3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 영어중고등부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전 11:45 한어중고등부예배 오전 10:30  
영어주일예배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토 주일 오전 6:00

**엄영민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티제일장로교회**  
열린교회, 주는교회, 키우는교회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 714-891-2029, 898-1068 F: 714-373-3097

1부예배 오전 6: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45 청년부예배 오후 2:00  
3부찬양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토)  
수요일예배 오후 7:30

**남성수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영혼을 구원하며 제자삼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rcc.com

주일예배 오후 1:00(분당) 새벽기도 (화-금) 오전 5:30  
EM예배 오후 1:00 (pre-school) (토) 오전 6:00  
주일성경공부 오후 3:00 이스라엘 세미나: 매달 첫째 주 목요일 성경집회 오후 7:30 (토) 오전 10:00

**최국현 담임목사**

**은혜와진리교회**  
부설: 이스라엘 알리아 선교회-성지순례, 정탐전문  
4000 Green Ave, Los Alamitos, CA 90720  
T: (714) 351-0124 (Cell), (562) 475-4323 (Church)

1부예배 오전 7:30 새벽예배 평일 오전 05:30  
2부예배 오전 09:30 토요일 오전 06:00  
3부예배 오후 11:30 금요일예배 오후 08:00  
4부예배 오후 2:00

**한기흥 담임목사**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상급받는교회 세계선교를 마무리하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1부예배 오전 8: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청년예배 EM 오후 1:30 오전 6:00(토)  
히스패닉 예배 오후 5:00

**주혁로 담임목사**

**주님의 빛 교회**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0  
T: (714) 252-9191 / www.lordlight.org

주일 성금 예배: 오전 9:00am 금요기도회: 금요일 오후 8:00pm  
주일 한국어 예배: 오전 11:00am 새벽기도: 월-금요일 오전 5:30am  
주일 영어 예배: 오전 11:00am 토요일 오전 6:00am  
주일 유초등 예배: 오전 11:00am

**임경남 담임목사**

**토기장이교회**  
1808 W. Lincoln Ave. Anaheim, CA 92801  
T: (714) 234-5338 / www.pottersccc.com  
E-mail: info@Pottersccc.com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조원택 담임목사**

**하나님의 은혜교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교회가 되자"  
14706 Pioneer Blvd., Norwalk, CA 90650  
T: (213) 247-7440 / godsgracechurch.org



www.SuperMirapharm.com

# 투병생활이 필요없는 치유의 시대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각종 암, 난치병, 아토피 천연 치료제 개발!!

“100% 천연 면역조절제”  
“100% NATURAL IMMUNOMODULATOR”

## 미라팜-22 MIRAPHARM-22

22세기형 생명공학적인 첨단 의약품으로 탄생했습니다.

2014년 한국은 면역조절제 개발이 국가적 신약개발 과제로 대두되었다. 이른바 생물학적 면역조절제 개발 프로젝트이다. 인간의 질병의 근본 원인 치료제를 개발하는 게 목표이다. 기존 면역조절제(화학성)의 부작용을 최소화해 안전성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 생명공학적인 접근이 필요한 때라서 국가적인 개발 과제 삼은 것이다. 그런데 본사는 이런 첨단 의약품제조기술을 25년 전부터 연구하기 시작하여 생체응답 조절작용제로서의 면역조절제인 미라팜-22를 미국 FDA에 일반의약품으로 등록하고 출시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 FDA에 NDC (OTC Drug) 일반의약품으로 인증 등록 됨  
일반의약품 등록번호 NDC No.: 58912-2001-1



FDA 직접 확인해보기  
NDC Number를 선택하시고  
58912-2001-1 로 검색



90cap. 300mg/cap. Made in USA

각종 암, 난치병,  
아토피 등 질병에 대한  
예방 및 치료에 도움을 주는

## MIRA PHARM -22

Mirapharm-22는  
Miracle Pharmacy(기적의 약)의 합성어이며  
22는 22세기형 첨단신약을 뜻합니다.

~~\$600~~ \$400 /1병 (한달분)

100% 천연 물질로 만들었으며 25년간의 연구와 비임상을 거쳐 효과는 확실히 검증이 되었고 부작용의 염려가 없습니다.

- ◆ 14년간의 연구와 11년간의 임상 끝에 미국 FDA에 Human OTC Drug 일반의약품으로 등록됨
- ◆ FDA 등록 연구소에서 성분 분석 테스트 결과, 영양 함유물 및 식품으로 안전하다고 인증됨
- ◆ 각종 암, 난치병, 아토피 등 면역결핍에 의한 각종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도움을 주는 약으로 등록 명기되어 있음.
- ◆ 친환경 100% 천연 유기물질을 핵심 재료로 생명공학적인 공법으로 특수 가공한 차세대 신개념의 첨단 천연의약품인 면역증강 및 면역조절제
- ◆ 면역증강제로도 치유되기 어려운 자가면역질환들을 면역조절제로써 자가치유할 수 있는 첨단 의약품
- ◆ 어떤 면역증강 건강보조식품보다 탁월한 효능을 입증받아 일반의약품 NDC OTC Drug로 등록되었으며, 수많은 난치병들 중 대부분은 자가면역질환으로서 현존하는 약으로는 치료가 어렵지만 면역조절제인 미라팜-22는 이런 난치병들을 자기와 비자기를 인지할 수 있도록 면역세포에 작용, 항원특이적 또는 비특이적으로 면역반응을 증강시켜 면역계에 작용하여 면역반응을 촉진시킴으로써 면역을 스스로 조절해 주면서 예방 및 치료에 도움을 줌

최근에 피부암 치료제 옵디보가 출시되었습니다. 1년치를 한꺼번에 지불해야 하는 약값이 \$143,000입니다. 그러나 미라팜-22는 피부암은 물론 각종 암 치료제입니다. 한 달분 한 병 특가 \$400이며 임상 치료 효과도 더욱 높습니다.

### Mirapharm-22 복용 체험담 요약본

- (60대 남) - 대장암 말기로 1년6개월 동안 매일 혈변, 수술 일절 안하고 항암제도 전혀 안받고 오직 미라팜-22만 하루에 6알 복용. 그 후 암덩어리가 자지 빠져 나오기 시작. 50일이 경과한 후부터 일절 혈변이 없이 한 달(11월7일)째임. 건강해지면서 피곤이 없어지고 식욕도 돌아옴. 저희 업소가 있는 몰 안의 경비원으로 근무중
- (50대 여) - 쇼그렌증후군 7년이상 눈물, 침 분비가 안되는 불치병. 7년동안 삼성병원 치료받고 있어도 효과 전무함. 제력 충분하여 현대의학, 어떤 대체의학도 치료불가능 체험함. 미라팜 5알씩 복용 후 2주일쯤부터 편안한 느낌. 28일 후 침샘이 고임. 4개월 지나서 백혈구 수치 4000이 넘어 정상 회복됨. 과거 큰 사업들 다 접었는데 지금(11월7일)은 더 확장하면서 급속도로 호전됨.
- (47세 여) - 구인외사로 얼굴 반쪽이 찌그러서 은행도 그만두고 1년 동안 밖에도 돌아다닐 수가 없다가 3병 복용 후 완전히 정상이 되어서 다시 은행에 다닐 준비하고 있어 행복하다 하심.
- (9세 여 베트남) - 백혈병으로 고생 중 2병째 먹고 딱딱했던 두피가 말랑말랑해지기 시작해지면서 회복 중. 어머니가 채널 57-1 베트남 TV 방송에 인터뷰 자청하심.
- (56여 베트남) - 몇 달 복용 후 목에 갑상선암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간암 세포도 갈수록 약해지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음.
- (26 남 베트남) - 날 때부터 자기면역 알러지 질환으로 피부가 갈라지는 난치병에서 미라팜-22를 이틀 먹고 즉시로 회복되어 건강해져서 그 어머니가 베트남에 방문하여 베트남 정부병원 닥터 16명과 3일간 미라팜-22 의약품 미팅을 가짐.
- (84세 여) - 만성속환으로 인사불성에 장례준비하러 의사 권유에 미라팜 며칠 먹고 간호사도 놀라는 가운데 의식회복하고 곧 바로 손주와 직접 전화통화함.
- (60대 여) - 의료사교로 뇌사판정 후 장례 준비 권고 3회 받고 마지막 기회로 죽어도 좋다고 서명한 후 미라팜-22 선택. 위장관을 설치하여 위장에 넣고 18시간 후에 의식을 회복함. 유튜브에서 "뇌사 미라팜" 을 검색하면 나옴
- (50대 여) - 한 병 드신 후 파킨슨병으로 고생 중 팔 움직임이 좋아졌다.
- (20대 여) - 한 달 후 생리불순 해결되었다.
- (70대 남) - 한 병 드신후 암 수술로 머리카락이 없었는데 검은 머리카락 다시 난다.
- (50대 여) - 하루 3캡슐로 5일 복용후 가슴의 통증이 사라졌다.
- (50대 여) - 밤새 잠 못 잤는데 10일 후 편안하게 자면서 낮잠도 잔다.
- (60대 남) - 하루 5캡슐로 전립선이 많이 호전됐다.
- (50대 여) - 일주일 복용 후 머리 감은 후 화장실 바닥이 까맣게 될 정도로 빠진 머리가 한 올도 안 빠진다.
- (70대 남) - 전립선암, 대장암 수술 이후 다리 전체 절임이 줄어들고 식욕이 증가됐다.
- (50대 남) - 쓸개 수술 후 3년동안 하루 6번 설사가 이를 복용 후 멈추었다.
- (60대 남) - 신장투석 중 가려운 증세가 없어지고 인 성분이 툭 떨어졌다.
- (80대 여) - 각종 암 수술 후 거의 움직이지 못하다가 한 병 드시면서 기력을 회복되고 있음.
- (50대 남 외국인) - 대장암 환자. 미라팜-22를 2병째 먹고 대변 시 핏덩어리가 쏟아져 나오면서 회복됨.
- (50대 여 외국인) - 체제가 유방암 수술 후 재발하여 미라팜-22 복용 후 6개월 만에 완치 판정받고 중국과 동남아시아 5개국 미라팜-22 독점권을 신청하여 획득하고 현재 사업 중임.

(이상은 미라팜-22를 복용하고 체험담은 최근의 사례에 불과하며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사례가 준비되어 있으므로 계속해서 추가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안전한 인터넷 홈쇼핑 www.KBSmall.com

**HQ 헬스 / HQ 바이오텍, INC.**  
LA 본점 : 833 S. Western Ave. #1 LA, CA 90005  
세리토스직영점: 12224 South Street Artesia, CA 90701

L. A. 본 점 (213)365-2100  
세리토스 직영점 (562)760-2359



월-금: 10am-7pm, 토:10am-5pm



12224 South Street Artesia, CA  
세리토스 직영점





LA 학부모님,  
아직도 학군 따라  
이사가십니까?



# LA 한인타운에는 킨더에서 초중고까지 갖춘 명문사립 NCA가 있습니다!

졸업생 전원 아이비리그 및 UC 계열대학에 진학하고, 타 사립학교 대비 월등히 경제적인 교육비로 소수정예의 교육이 가능한 NCA에서 가르치십시오.



- 졸업생 평균 GPA 4.34 및 SAT 평균 2,048점 기록(전미주 평균 1,500점)
- 지난 15년간 전 졸업생이 UC 계열과 유수의 명문대학에 진학
- LA에서 유일하게 국제학사(IB) 및 AP 프로그램 동시 실행
- 학생과 교사 비율 평균 10:1로 소수정예의 질 높은 교육 환경
- 새 학기 보충수업 위주의 썸머스쿨 운영(필드트립 등 다양한 액티비티 제공, 타학교생도 환영)
- 편리한 교내 애프터스쿨 운영(월 \$75~\$150 정도의 경제적인 비용)
- 전교생에 개인 랩탑 컴퓨터 수업(교과서 대체 및 방과 후 온라인 수업 보강)
- 토론 위주 수업으로 학생의 발표력, 창의성, 협동심 강화
- 미주 최초 한인이 설립한 비영리 기독교 사립학교로서 영성 함양



**NCA 사립 초중고등학교**  
**NEW COVENANT ACADEMY**

3119 W. 6th Street, Los Angeles, CA 90020

입학 문의: (213) 400-3588

명문대 입학은 킨더부터 시작됩니다!  
**킨더 학생모집**





amgreensolutions.com

# 엠그린의 '닥터솔라'가 전기값 95%, 물값 30%를 한번에 줄여 드립니다!



솔라시스템의 공급증을  
속 시원히~ 해결해 드리는  
엠그린-닥터솔라

## 솔라시스템 설치전 설치후

Los Angeles Department of Water & Power

www.ladwp.com

Electric Amount Due **\$537.72**

Amount Due **\$23.38**

Los Angeles Department of Water and Power Charges

	Electric Charges	3/4/14 - 5/5/14	3054 KWH	\$537.72
	Water Charges	3/4/14 - 5/5/14	66 HCF	\$322.98
800-342-5397	Total LADWP Charges			\$ 860.70

Power Charges				
15	152 KWH			\$23.38
15	45 HCF			\$215.69
Total LADWP Charges				\$ 239.07

Water Amount Due **\$322.98**

Amount Due **\$215.69**



California Lic# 947489

초기 설치비용 무료! (개인 Credit Score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태양광 솔라시스템-엠그린

- 업체 유일, 30% 물절약 시스템 함께 무료 제공**  
솔라시스템을 설치하는 모든 고객에게 절수형 토일렛, 스프링쿨러 노즐 무료교체.
- 최고의 파이낸싱 프로그램 제공**  
고객에게 가장 필요한 견적, 가장 유리한 파이낸싱 조건을 찾아 드립니다.
- Made in USA 제품만 사용하는 유일한 업체**  
솔라패널과 인버터 모두 25년의 워런티 제공.
- LA CITY 선정 2년 연속, 에너지 절약 최우수업체**  
인정받은 최고의 기술력과 노하우로 안정적인 시공과 커스터머 서비스를 제공.

주 7일 무료상담: 1.844.900.1004

1367 Venice Blvd, LA, CA 90006 / sunny@amgreensolutions.com



솔라 세일즈 컨설턴트 모집



# 고대 한국의 생사관, 신관과 연결해 이해해야

## 샤머니즘의 생사관

샤머니즘의 생사관은 먼저 고대 신화에 간직된, 민족의 전통적 사상을 분석함으로써 얻게 된다. 샤머니즘 안에는 가장 오래된 동양의 종교 철학인 주역 사상과, 건국 신화들이 지니고 있는 세계관 또는 인간관이 들어 있다.

무교에는 고차원적 세계관은 없지만, 고대부터 주역이 설명하는 것처럼 음양결합 또는 양성(남녀)합일의 원리를 따라 천지와 인간 또는 국왕이 출생됨을 설명한다. 즉, 한국인의 가장 오래된 생사관은 혼인하고 출산하는 원리에 의해 설명된 출산신앙적 건국신화, 사령송배나 단군신화 등에서 나타나는 무속적 '영혼불멸신앙'에서 발견된다.

이러한 영혼불멸신앙과 사후귀신신앙이 기독교 이단들의 핵심사상으로 머물러 있는 것을 보면서, 전통사상의 강력함을 새삼 느끼게 된다. 한국 기독교 이단으로 국제화되고 가장 문서가 많이 공개된 통일교의 교리 분석에 대해서는 이미 언급했듯(본지 5월 29일자, 484호 15쪽 참조), 자칭 기독교라고 주장하는 혼합주의 이단 속에 남아 있는 전통적인 생사관의 근원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조선시대 유교의 생사관에 관한 분명한 이해를 위해서는, 유교의 세계관과 신관을 아울러 파악해야 한다. 유교의 세계관은 경전인 역경의 설명과 같이 음양합일의 원리에 기초한다. 공자의 역경 주석에 의하면 만물은 태극에서 생(生)했다고 한다. 유가는 창조물을 절대자에게서 출산된(生한) '자녀들'로 설명하고 있다.

조선시대를 지배한 신유교인 성리학(性理學)은 태극을 이(理)라고, 음과 양을 기(氣)라고 생각했다. 기는 확장되기도 축소되기도 하며, 물

치면 만물이 살아나고, 흠어지면 만물이 사라진다고 여겼다. 즉, 인간은 기의 형체이거나 변형물이라는 말이다.

성리학은 일단 흠어져 버린 기는 다시 모여 사물(귀신)이 되지 못한다는, 무신론 내지 반영혼불멸론의 입장을 취한다. 사람이 죽으면 혼은 천(天)으로 돌아가고 백은 지(地)로 돌아가 혼백이 산화되어 일원기(一元氣)로 돌아감으로써, 고유성이나 개체성은 더 이상 존속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산화론은 무속신앙과 결합되어, 산화된 기가 완전히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조상 제사를 통해 죽은 자의 현재를 경험하는 강신신앙(spiritism)으로 발전하였다. 유자들은 원한이 맺혀 죽거나 흉사의 경우엔 혼이 산화되지 않고 한동안 요괴가 되어 '신적 작용'을 할 수 있다고 믿었다. 성리학은 사령(死靈)이 근원자로 돌아가 원기(元氣)가 되고, 기(氣)가 산화될지라도 오히려 이(理)는 없어지지 않으므로 지성으로 제사를 지내면 그 제물을 흡할 수 있다는 무속신앙(spiritism)적 요소가 혼합되어 있다.

이 신유교적 '영혼산화론'은 샤머니즘의 귀신신앙과 혼합되어 그들의 상·제례에서 귀신이 숭배되고, 조상 제사를 효(孝)라 하여 국민윤리의 원천이 되게 하였다.

기독교 복음이 선교사들을 통해 한국에 전달된 후, 삼위일체 신(神) 개념으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 개념으로 '성령(聖靈)'이 토착화되었다. 그러나 한국 재래 종교들의 개념으로는 성령이 상제, 신, 천(天), 영(靈), 귀신, 신령, 마음 등으로 혼동될 수 있다. 그러므로 성령은 이단 사상에 의해 무교적 귀신 또는 신령으로 왜곡되기 쉽고, 사탄의 쫓개인 마귀들은 '귀신들'로 변



이동주 박사  
선교신학연구소장

역되면서 죽은 사람의 혼으로 오해되기 쉽다.

이러한 전통에 의해 기독교의 인간관과 생사관이 이단적으로 왜곡되는 경우가 있다. 그 왜곡 속에 재래적 인간관과 생사관이 잠재해 있는 것이다.

전통적으로 가장 원시적 종교인 샤머니즘은 다신신앙과 최고신앙은 있었으나,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관해서는 추상해 보거나 전제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샤머니즘은 한국에서 건국 신화들을 만들었지만, 창조신화 같은 것은 만들어 내지 못했던 것이다. 다른 재래 고등종교들 사상에도 창조주와 피조물의 전제가 없거나, 구원하시며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현재적·종말적 통치에 대한 개념도 없다. 그러므로 샤머니즘의 생사관은 사령송배와 관련된 영혼불멸신앙과 불가지론적 내세관에서 찾아볼 수 있다.

### I. 단군신화의 생사관

한국인의 가장 오래된 생사관은 단군신화에서 발견된다. 단군신화는 김부식의 삼국사기와 일연의 삼국유사에 최초로 기록된 '한국 민족의 건국 신화'로서, 한국 고대의 생사관이 그대로 담겨 있다. 한국의 원시종교는 중국의 원시종교처럼 무교였고, 단군신화는 한국의 고유한 사상과 신앙에 의하여 형성된 신화로서, 불교와 유교의 종교철학

적 영향을 받기 전 교리가 서지 못했던 원시적 신앙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다.

고대 한국의 생사관은 신관과 연결해 이해되는데, 무교가 고대부터 시조를 신적 존재로 숭배하였기 때문이다. 단군신화는 이 땅에 하강한 하나의 신적 존재와 인간 내지 짐승의 결합에 의해 태어난 한 시조의 신적인 혈통과, 민족이 신적인 후예임을 설명하고 있다.

땅의 존재와 결합하여 자녀를 번식하는, 하늘에서 하강한 신에 대한 관념은 고대 중국의 무교사회에서 형성된 주역의 음양조화사상과 병행되는 신관과 인간관을 내포하고 있다. 이 단군신화에서 나타나는 뚜렷한 특징은, 신이 인간이나 짐승처럼 결합하고 출산하는 모티브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혼인-출산' 모티브는 고대의 출산신앙(Fertility Cult)의 본질이다.

또 단군 신화는 시조 단군이 영원한 산신이 됐다고 전한다. 이렇게 단군신화는 단군의 불사(不死) 내지 신신 신앙으로 오늘날까지 단군 숭배, 산신숭배, 조상숭배 등의 무교적 원시 종교 신앙을 고수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단군신화에서 나타나는 무교의 인간관은, 혈통적인 관계로서의 신인동격사상을 나타낸다(analogia entis). 단군신화는 현재에서 불로불사를 추구하는 생사관을 보이고 있다.

### II. 샤머니즘의 종교적 체험과 생사관

샤머니즘의 생사관은 무교의 종교체험에서 형성됐다. 무교는 단순한 이론도 교리도 체계화하지 못했으나 종교체험에 근거한 활력있는 종교이며, 죽은 영혼들이 귀신이 됨을 전제한다. 무교의 종교적 체험은 먼저 무당의 입무 과정에서 경험되는 신비체험을 간과할 수 없다.

유동식 교수가 연구한 것처럼 신비체험 없는 '배운 무당' 또는 '습득 무당'은 진실한 무당이라 볼 수 없고, 참 무당이란 무병을 앓고 나서 강신을 체험하고 그 후 자유롭게 강신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입무 과정에서 나타나는 무병과 의례(乮) 행사에서 나타나는 무당의 점신 형태에는 두 가지 신비 현상이 있다. 하나는 엘리아데(Mircea Eliade)가 북아시아를 중심으로 세계 도처의 샤머니즘을 연구하며 수집한 신비체험으로, 사람의 영혼이 타계하게 되는 것과 또 하나는 한국 무당들이 흔히 체험하는 강신 현상이다.

마찬가지로 유동식·최길성 박사 같은 무속 연구가들은, 무당이 되는 첫 단계가 그 소명을 증명하는 무병임을 밝혔다. 이 병의 증세는 엘리아데가 지적한 것처럼 정신병이나 히스테리 내지 간질병 구조를 갖고 있다. 그런데 무병이 정신병이나 간질병과 다른 점은 곳을 하고 무업을 시작하면 그 병이 치료되는 점이며, 또 계획적으로 실신 상태 내지 점신 상태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이다.

무당들의 신비체험은 공포와 혼돈과 함께 겪는 죽음의 상태와 재생의 체험이다. 신과의 교제가 그리스도인들이 체험하는 성령 안에서 의와 영광과 희락(롬 14:17)이 아니라, 귀신에게 사로잡히고 짓밟히는 무서운 고통이다.

무당은 이러한 무병을 통해서 성립되며, 귀신이 그에게 내려 강요함으로 두려워 무당이 되게 하는 것이다. 무당은 귀신을 초청하고 귀신과 교제하며 곳을 하고 공수를 주며 귀신을 찬양하는 타령을 부른다. 샤머니즘은 이러한 무속신앙적 체험으로 말미암아 전통적으로 확고한 영혼불멸신앙과 귀신신앙을 전승하게 되는 것이다.

## 힐링 칼럼

# 어머니, 사랑해 주세요! 진정으로



강선영 대표  
한국상담심리치료센터

아이들이 갑자기 식탐이 많이 생겨 다른 아이들이 먹는 것을 빼앗아 먹거나 손가락을 심하게 빠는 행동을 하면 엄마들은 주의해서 봐야 한다. 아이들은 마음의 배가 고프면 식탐이 많아지게 된다. 애정결핍은 외로움과 불안만을 만들고 손가락을 빨게 하기도 한다.

사랑이 부족하면 아이는 폭력적

으로 변하기도 한다. 불안과 분노는 늘 불어다니는데, 불안이 커지는 만큼 분노도 커지는 것이다. 잘 먹는 아이가 예뻐 보이기도 하지만, 지나친 식탐은 소아비만이나 식이장애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신체적인 면이나 정서적인 면에서 불균형 상태를 가지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 그래서 방지해 두면 안 된다.

몸은 음식을 먹어야 기운이 생긴다. 마음에도 사랑을 채워주어야 삶의 의욕과 희망이 생기고 꿈을 가질 수 있게 된다. 그렇지 못하면 욕구불만이 생기고 이것은 마음의 허기가 된다. 이 허기를 음식으로 채우려는

욕구인 식탐이 나타날 수 있다.

인간에게 사랑은 절대적이다. 밤만 먹고는 살 수 없는 존재가 인간이다. 엄마의 따뜻한 사랑이 결핍되면 수많은 문제가 생기게 된다. 사랑 부족이 애정결핍증이라는 병으로 나타나게 되면, 대인관계에서 늘 불안을 느끼게 된다. 주위 사람들에게 부족한 사랑을 채우려는 무의식적인 욕구가 불건강한 집착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애정결핍의 문제는 어린 시절 성장기에 생긴다. 부모님의 사이가 안 좋거나 가족 구성원들끼리 불화가 잦은 것이 한 원인이 된다.

그런 환경에서 아이가 건강한 부모님의 사랑을 제대로 받기는 힘들게 된다. 가정폭력이 있거나 방치되면 애정결핍증의 문제는 중증의 우울증·불안증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렇게 성장기에 방치되거나 사랑을 못받고 자란 아이들은 유년기를 지나 청소년기와 성인이 되어서도 애정결핍 증상을 보이게 된다. 무엇인가 항상 부족하다고 느끼는 애정결핍환자들은, 잘 때 무엇인가 끌어안는거나 평소 혼자일 때 다리를 편다거나 손톱을 물어뜯는 등의 불안한 행동을 하기도 한다. 타인의 눈을 심각할 정도로 의식하고, 이성

교제를 할 때에는 상대방에게 지나치게 집착하는 모습을 보인다.

어린 시절 애정결핍으로 파생된 심리적인 병증이 오래되었을수록, 치유하는 것은 너무나 어렵다. 그러나 치유될 수 있다. 반드시 치유되리라 믿음을 가져야 한다.

한번 생긴 애정결핍이 얼마나 많은 문제를 파생시키는가. 어머니인 당신이 사랑을 주어야 한다. 자신의 결핍을 넘어서서, 곁에서 간절한 눈빛을 보내고 있는 당신의 아이를 바라보자. 그 아이가 얼마나 엄마인 당신의 사랑을 갈구하고 있는지 살펴 보아야 한다.



▲콧물빼기 시럽으로 환자가 치료 받는 모습

항상 코가 막혀있고 아침이면 콧물을 너무 많이 흘렸습니다

**체험사례1** 9세 여아

콧물빼기를 하니 너무 많은 코가 빠져 나왔다. 환자가 침을 맞으려 하지 않아 발효 한약인 '코편해환'을 복용하면서 1주일에 두번씩 치료를 받았다. 치료 5번이 끝난 후, 환자 부모가 "이젠 저녁에 잠을 잘 때 입을 벌리지 않고 코로 숨을 쉰다"면서 너무 좋아했고, 10번이 끝나자 상태가 너무 좋아졌다.

# 비염, 축농증 지긋지긋한 콧병 치료는 콧물빼기 치료가 해답!

오랜 시간 비염과 코막힘으로 냄새도 못 맡는 환자

**체험사례2** 여대생

어릴 때 부터 잠을 잘 때 입으로 숨을 쉬다 보니 아침이면 입이 말라 많은 고생을 했다. 1주일에 두 번씩 내원, 콧물빼기와 침 치료를 병행했고 6번 치료후엔 자신도 모르게 코로 숨을 쉬면서 자게 됐다. 그래도 완전히 고치겠다고 15번정도 내원해 치료를 받았다. 모든 치료가 끝난 후엔 코로 숨쉬는 것이 너무 좋으면서 머리가 맑아져서 공부에 집중이 잘 된다고 했다.



# 경산한의료병원

3030W, Olympic Blvd., Suite 202, LA, CA 90006(삼호관광몰 2층)  
류재규 원장/경산한의료 대학교수 T.(213)380-0853



기/독/일/보와 함께하는

# 복새동

## 책으로 통하는 새로운 세상



### 신간 추천

#### 청년아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박길웅 | 밀알서원 | 224쪽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답을 제시하여 준다. 지식적·감정적 신앙생활에서 벗어나, 삶으로 실천하도록 격려하고 있다. 저자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으나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살아가야 하며,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주님께 보냄받은 자들임을 강조한다. 우리를 언제나 섬세하게 이끄시는 '그분'의 손길을 느끼자는 책.



#### 세상 중심에 서는 영성 리더십

진재혁 | 두란노 | 276쪽

사회에서 최근 '리더십 부재'가 자주 회자된다. 오늘날 내 상황과 위치에서 어떻게 리더십을 발휘할지, 한국적 리더십은 무엇인지 궁금한 이때, 리더십 전문가인 저자는 영성 리더십이 무엇보다 '강력한 리더십'이라 말한다. 누구나 회사, 학교, 집, 교회, 목회 현장에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기 때문에, 영적인 일을 하는 목회자뿐 아니라 일반 성도들도 리더십을 배워야 한다고 강조한다.



#### 나는 평신도 목회자다

박래백 | 예수전도단 | 200쪽

직업이 비행기 기장인 평신도이면서도 개척교회 목회자의 마음으로 소그룹 현장을 섬겨온 저자는, 전도의 본질은 프로그램이 아니라 관계라고 말한다. 얼어붙은 것 같은 전도의 문을 여는 열쇠는 시스템이나 조직이 아닌 '사람'이다. 큰 공동체가 놓치기 쉬운 부분을 감당하는 가정교회 사역, 평신도 목양사역의 생생한 현장과 구체적인 열매들까지 풍성하게 담았다.



#### 하나님의 도시

스카이 제서니 | 죠이선교회 | 280쪽

하나님이 설계하신 그곳은 더 이상 막연한 그 무엇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세상과 단절되지 않으며, 우리를 통해 완성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때까지 무슨 일에 힘과 시간을 집중해야 하며, 이 세상의 어느 부분을 가꾸어야 할까? 저자는 신성한 일과 세속적 일의 구분을 없애고, 그리스도가 삶의 모든 영역을 다스리게 하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자고 말한다.



## REVIEW

# 당신의 감정,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 부정적 감정 자주 시달린다면, '감정 다스리는 법' 배워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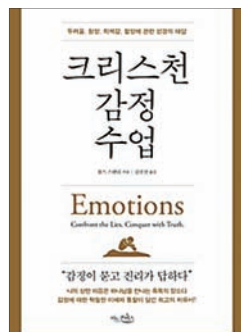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감정에 지배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려 들지 않지만, 인생의 폭풍이 불어닥치면 감정을 조절하는 일이 만만치 않음을 느낀다. 더 큰 문제는 이런 감정을 어떻게 조절해야 하는지 혹은 어떻게 제거해야 하는지 모른다는 것이다.

특히, 크리스천들에게는 '감정을 다스린다는 것'에 거부감을 느끼는 이들도 존재할 것이다. 자연스럽게 놔두면 시간이 해결해 준다거나, 성령충만하면 감정의 문제는 사라질 것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찰스 스탠리 목사는 <크리스천 감정 수업>에서 "감정은 반드시 다

스려야 할 대상이며 하나님 안에서 그것은 가능한 일"이라고 말한다. 그는 여러 부정적 감정들 중 사람들의 내면에 가장 강력하게 도사리고 있는 것으로 '두려움'을 꼽으며, 이는 아담과 하와가 에덴동산에서 범 죄한 이래 인간이 내면에서 몰아내기 위해 끊임없이 싸워온 감정이라고 정의한다.

현대인들의 재정 관리나 인간관계, 직장 생활, 결혼 같은 영역에서 겪는 문제의 핵심을 살펴보면 두려움이 자리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이 외에도 그는 인간을 고통스럽게 하는 주요 부정적 감정으로 거절감, 원망, 죄책감, 절망을 꼽으며,



크리스천 감정 수업  
찰스 스탠리 | 아드몬테스 360쪽

어떤 경로로 이런 감정이 우리의 마음에 자리잡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감정들로 인해 나타나는 증상들과

치유 방법을 낱알이 제시하며 하나님의 참된 치유와 회복으로 가는 길을 이야기한다.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지속적인 고도 성장을 이룩해온 한국 사회는, 가장 경쟁적 문화를 가진 국가 중 하나로 꼽힌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극심한 스트레스에 노출된 채 살아가면서도, 감정을 다루는 문제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불안과 두려움에 시달리면서도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해 마음의 문제를 키우기가 쉬운 환경에 노출돼 있는 것이다.

하지만 겪고 있는 문제가 얼마나

크고 오래되었고 복잡하든, 문제를 바꾸겠다는 마음만 있다면 그것에서 빠져나올 방법은 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성적인 극한 스트레스 속에 살도록 설계하지 않으셨다. 우리 내면에서 벌어지는 감정의 회로를 방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통스러운 상처로부터 치유하실 뿐 아니라, 그 경험을 이용해 우리가 감히 상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방법으로 사람들을 복되게 하실 것이다. 양면성을 지닌 이 감정의 주인을 제대로 찾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인생이 얼마나 즐거울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은혜를 누리라.

# 이레 에미나 다용도 세제

우리 집에는 20가지 이상의 화학 세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집안의 모든 세제는 친환경 무공해 『이레 에미나 다용도 세제』가 대신 합니다.

이레 에미나 다용도 세제는 토양에서 발견한 생물에 이로운 균들을 이용하여 산화를 막는 효소를 연구 개발하여 화학제품을 대신한 친환경 다용도 세제 제품입니다. 세탁, 설거지, 화장실, 욕조, 마루, 거울, 세차, 어항, 냄새제거, 목욕, 양치질, 애완동물 관리, 화초, 텃밭 가꾸기를 한 개의 이레 다용도 친환경 세제로 통일하여 비용과 물을 절약할 뿐 아니라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건강을 지킵니다.

**특별 사은품**  
이레 에미나 1 Box(1kg: 4인 가정 1년 사용량), 『밥돌』구입하신 분에게 『생생팩 5Kg용』1정 특별선물

【가정 필수 제품: 밥돌】  
밥 지을 때 밥술에 두면 밥맛이 좋아지고, 24시간 후에도 밥의 색깔이 변하지 않습니다.

【특별 선물 제품: 생생 팩】  
생생 비닐팩에 채소, 과일 등을 보관하면 20일이 지나도 생생합니다.

### 사용 효과

- **세탁:** 작은 양으로 화학 물질을 없애 주고, 유연제를 사용하지 않아도 세탁물의 냄새가 없고, 보송보송한 건조에 도움을 주는 옷으로 만들어 줍니다. (아토피, 피부병, 상처 등)
- **청소:** (스팀 청소기, 걸레 등)에 사용하시면 냄새를 없애주고 마루, 가구, 가전제품, 세차 시 윤이 나고 먼지가 잘 붙지 않습니다.
- **설거지:** 기름기, 탄 것이 잘 제거되고 행굼을 적게 하여 물이 절약됩니다. 그리고 설거지 한 물은 배수구를 청소할 뿐 아니라 식물에 주면 좋은 토양을 만들어 줍니다. 설거지, 청소할 때 고무장갑을 끼지 않아도 되고, 맨손으로 하면 피부가 좋아지고, 혈액순환이 잘됩니다.
- **집안(가구, 이불, 커튼 등), 차, 사무실에 뿌리면** 집안의 공기가 깨끗해지고, 친환경(곰팡이, 화학물질, 갈마 방사선 절감 등)으로 인해 호흡기 질환, 비염 등에 좋습니다.
- **냄새 제거:** 화장실, 애완동물, 신발, 등에 뿌리면 냄새가 없어집니다.
- **애완동물:** 목욕시킬 때 행굼을 철저히 하지 않아서 쉽고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어항의 수질이 변하지 않아 냄새가 없습니다.
- **농작물, 화초 재배:** 비누기루를 땅에 뿌리거나, 작물에 스프레이하거나, 세탁, 설거지 한 물을 주면 토양을 비누어 무공해 농작물을 재배할 뿐 아니라 병충해(진딧물)가 없고 성장이 좋아 질 좋은 작물을 많이 생산합니다. 고추 작물을 사람 키보다 크게, 해바라기를 4m 정도 키울 수 있습니다.
- **과일, 야채 씻을 때** 사용하시면 농약을 분해하며, 항산화 작용으로 신선함이 오래가고, 꽃에 뿌리면 오랫동안 시들지 않습니다.
- **양치질 할 때** 극소량을 치약에 발라 사용하면 혀 입안과 치아가 깨끗해지나 먹지는 마십시오.
- **차의 에어컨 필터에** 뿌리면 성능이 좋아지고, 집안이나 냉장고의 온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 **활성산소 제거, 정전기 방지, 신선도 유지, 에너지 절감, 해충기피, 습도조절, 결로 곰팡이 방지** 효과가 있습니다.

### 사용 방법

- 세탁 시에는 세탁기(40리터)에 2~5g(티스푼 1개는 5g) 정도 넣은 후 세탁, 담가 두면 효과가 더 좋습니다.
- 집안 청소 시(냄새, 모기, 파리 제거 등) 물의 1/1000 량으로 뿌려 주시면 됩니다.
- 작물에 뿌릴(스프레이) 시 1/3000~1/10,000 정도로 1주에 한두 번 정도, 나무는 2g 정도 땅에 묻어 주면 더 좋고, 시들은 채소, 화초는 3일 정도, 나무는 2달 정도에 효과가 있습니다. 너무 많은 양을 사용하시면 식물이 마를 수가 있습니다.
- 아토피 피부 1/1000 정도, 아기 목욕 시에는 1/10,000 정도로 희석하여 사용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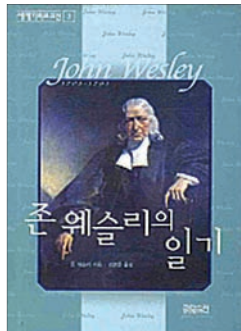
문의: Yirrh Wellbeing Co. **이레 웰빙** Tel:323)316-6815



# 하나님께 사로잡힌 삶을 보여주다

복음주의적 부흥 이끈 웨슬리의 깨끗하고 경건한 삶의 모범

존 웨슬리는 영국에서 신앙부흥 운동을 시작하여 현재의 감리교회 토대를 이룬 창시자이다. 성공회 성직자의 아들로 태어난 존 웨슬리(John Wesley, 1703-1791년)는 1709년 목사관에 화제가 발생했을 때 구사일생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가리켜 '불 속에서 꺼낸 스승린 나무'라고 했다.



존 웨슬리의 일기  
존 웨슬리  
크리스찬다이제스트 | 462쪽

22세에 성직자가 되기로 결심한 그는 토마스 아 켈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를 읽고 큰 감명을 받았다. 후에 옥스퍼드대학교에서 그는 '홀리클럽(Holy Club)'을 이끌었는데, 이 모임은 웨슬리의 지도로 경건한 삶의 이상을 실현하려 했다.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그들은 성경과 교전을 연구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아보며, 옥스퍼드 감옥의 죄수들을 방문했다.

그의 일기에서 우리는 복음주의적 부흥을 이끈 웨슬리의 깨끗하고 경건한 삶의 모범을 볼 수 있다. 필자는 웨슬리의 어머니 수산나(Susannah)를 '영국의 신사임당'이라고 부르며 칭찬한다. <존 웨슬리의 일기(The Journal of John Wesley)>를 보면, 그녀는 열아홉 명의 아이 중 열 명이 살아남자, 자녀 교육을 위해 전적으로 헌신하였다고 한다. 일주일에 하루 저녁씩 각 아이와 따로 시간을 정해 만났는데, 목요일 저녁에는 존 웨슬리와 만났다. 아이들은 만 6세부터 일정한 시간 동안 성경과 기독교 교리를 공부했고, 그녀는 아이들을 위해 직접 교과서들을 만들기도 했다.

웨슬리는 어머니의 양육 원칙을 그의 일기에서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예를 들면 "어떤 아이든지 순종하는 행동을 하거나 남을 기쁘게 해 주기 위하여 마음먹고 행동했을 때는 비록 제대로 되지 않았어도 그것을 잘 받아들이고, 다음에는 더욱 잘 하도록 사랑으로 가르쳐 주어야 한다"는 원칙을 볼 수 있다.

1738년 2월 28일 일기에서, 웨슬리는 자신의 행동에 관하여 자신이 전에 하였던 결의를 새롭게 하면서 다음의 네 가지 결의를 기록하고 있다.

첫째, 절대적으로 개방성을 띠고, 내가 대화해야 할 상대와는 조금도 숨김없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눈다.

둘째, 계속해서 진지하게 노력하며 잠시라도 경박한 행동이나 웃음 거리를 즐기는 일에 빠지지 않도록 한다.

셋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는 말은 전혀 하지 않는다. 특히, 세상 일에 관하여 말하지 않는다. 아니,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할지라도 나는 안 한다. 그것이 너에게 무슨 관계가 있는가?

넷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는 일은 절대로 즐기지 않는다.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매 순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러기에 내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없는 일은 어떤 것이라도 하지 않는다.

웨슬리는 젊은 시절 제러미 테일러, 토마스 아 켈피스, 그리고 윌리엄 로의 저서들에서 큰 영향을 받아 일기를 기록하게 되었다. 그의 일기는 26권으로 제본되어 보존되어 있다.

1738년 5월 24일 밤, 그 유명한 당일 일기인 '존 웨슬리의 회심' 일기를 보자. 웨슬리는 친구의 강요에 의해서 마지못해 올더스게이트(Aldersgate) 거리의 한 집회에 참석했는데, 그날 누군가가 마틴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고 있었다.

"그런데 9시 15분 경이 되어서, 나는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하였다. 나는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 한 분만을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나는 그분이 이 죄, 아니 나 자신까지도 다 제거해 주시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해 주셨다는 그런 확신이 가득함을 느꼈다."

이 내용을 듣고 있었던 그는 그날

저녁 마음이 뜨거워지는 불길이 임하더니, 믿음으로 용서와 의를 얻는다는 진리를 깨닫게 되었다.

그 후 웨슬리는 당시 자기 교구 밖에서는 자유롭게 설교할 수 없었지만, "전 세계가 나의 교구다"는 말을 남길 정도로 야외설교를 강행하게 된다.

그는 그의 설교에서 다음의 세 가지 메시지를 강조하였다.

첫째, 죄인은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지하여 그의 대속과 부활을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

둘째, 신앙으로 의롭게 된 그는 하나님에 의하여 즉각적으로 새로운 인간이 된다.

셋째, 거듭난 인간은 곧바로 거룩한 삶의 생활로 들어간다. 성화의 과정은 인간이 하나님에 본래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는 과정이다.

웨슬리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참된 크리스천이 될 수 있는가?"에 집중되어 있었다. 왜냐하면 성화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온전한 크리스천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종교개혁의 영적 유산에 충실하면서도, 복음적 회개를 통한 '크리스천의 완전'을 추구했다. 실천적 영성을 강조하는 그의 가르침은 영국 사람들의 열렬한 호응을 얻었다. 그 결과 그의 설교는 가난한 노동자들과 하층민들에게 깊이 스며들어 갔다.

그의 일기는 끈질기고 강인한 그의 선교 활동을 보여준다. 동시에 하나님께 사로잡힌 영적 지도자의 삶을 증거한다. 특히 그의 일기는 그가 겪은 인간적인 고뇌와 시련에도 불구하고 신앙적 일관성을 유지한 영적 거인을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는 '완전한 크리스천'이 아니라, 믿음을 통하여 부단히 거룩함에 이르려는 '진정한 크리스천'의 본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

동생 찰스 웨슬리(Charles Wesley, 1707-1788년)는 훌륭한 동역자였다. 그는 6천여 편이 넘는 찬송시를 썼는데, 특히 교리적인 것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 많다. 그의 찬송가는 전 세계 교회의 유산이다('만 입이 내게 있으면', '천부여 의지 없어서' 등). 존 웨슬리의 복음운동은 큰 공헌을 했다. 그는 복음전도 활동을 통하여 18세기 영국을 피의 혁명에서 구원해 냈다. 웨슬리의 복음운동은 교회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고, 사회개혁의 원동력이 되었으며, 미국 대각성운동의 축진제 역할을 하였다.

송광택 목사  
한국교회독서문화연구회 대표

# 스튜디오 "주님은 나의 최고봉" 가이드

1년 내내 지속적인 묵상 돕기 위해 집필



주님은 나의 최고봉 스테디 가이드  
제드·세실리 매키스코  
토기장이 | 784쪽

크리스천 독자들과의 스테디셀러인 '주님은 나의 최고봉'의 영성을 증폭시켜 주는 '스테디 가이드'가 발간됐다. 제목 그대로 '주님은 나의 최고봉(My Utmost for His Highest)'의 참고서 내지 해설서이다.

물리학 교수인 남편 제드와 의사인 아내 세실리 저자 부부는 이 책을 1년 내내, 끝까지 지속적인 '주님은 나의 최고봉' 묵상을 돕기 위해 집필했다. 매달 1-2월까지 열심히 묵상하다가 포기하는 독자들이 적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됐기 때문이다.

그래서 매일 아침 묵상을 원하는 크리스천들을 위해, 1월 1일 '신앙의 중심을 지키십시오!'부터 12월 31일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하나님'까지, '나의 최고봉'이신 주님과 1년 내내 동행할 수 있도록 다소 두껍지만 동반자 또는 조력자 역할을 하겠다고 나섰다.

저자 부부는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오랜 기간 묵상하면서 오스왈드 챔버스(Oswald Chambers) 목사의 영성에 지대한 영향을 받았고, 그에 대해 많은 자료를 모으고 연구하는 과정을 통해 이 '스테디 가이드'를 펴낼 수 있었다. 이들은 "이 책의 목표는 당신이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끝까지 읽도록 돕는 일로, 이렇게 하다 보면 이보다 더 중요한 목표, 즉 최고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당신의 최선을 드리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자신한다.

'가이드'인 만큼, 매일 묵상에 앞서 저자들이 직접 책의 구성에 따른 효과적인 활용법을 제안하고 있다. 먼저 '본문의 배경'은 챔버스가 언급하는 주제를 소개하면서,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배경이 되는 정보를 제공한다. 그리고 본문을 짧게 한두 줄로 요약해 제목 바로 밑에 적어 놓아 그날의 요점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했는데, 이는 저자 부부의 첫 결과물로서 챔버스의 교훈을 잊지 않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 한다.

이어지는 '성경의 문맥'은 챔버스가 인용한 주제 성구와 본문에 있는 성구의 문맥을 알기 쉽게 설명해 준

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은 '날짜-제목-주제 성구-묵상을 위한 본문' 순으로 구성돼 있지만 주제 성구가 대체로 매우 짧기 때문에, 본문을 충실히 이해하려면 성경의 문맥을 꼭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후에는 본문 속으로 뛰어든 준비가 됐다. '본문의 메시지' 부분은 본문의 의미를 완전히 탐색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쉽게 놓칠 수 있는 질문을 통해 스스로를 점검하게 한다. 여기서는 본문 각 단락의 내용을 요약하고, 전체적인 핵심을 파악할 수 있다.

'적용 문제'는 직접 답할 수 있도록 빈칸이 있으며, 본문에서 배운 내용을 현 상황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저자들은 "챔버스가 계속 강조하는 사항 중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내용을 삶에서 적용하지 않으면 결코 그분께서 알려주신 계시를 이해할 수 없다는 점(최고봉' 3월 27일 본문 참조)"이라며 "책의 공간을 활용해 일상에서 고쳐야 할 점을 발견할 때마다 적어 놓으라"고 안내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기도'는 독자들이 기도문을 직접 작성해 채워넣어야 한다. 하루의 본문을 마무리하는 묵상 내용과 바로잡아야 할 점들을 기억하면서 짧은 기도문을 작성하면 된다. 저자들은 "만일 당신이 본문에서 배운 내용을 스스로의 힘으로 실천하려 노력한다면, 이 책은 당신을 절망에 빠뜨릴 것"이라면서 "하지만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으면, 그분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실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부는 "챔버스의 아내 비디가 편 집하고 정리한 그의 묵상 자료는 마치 절묘한 요리나 영양이 풍부한 디저트 같아서, 본문을 읽는 동안 당신의 영적 미각세포는 쾌감을 느끼게 될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무엇보다 맛을 제대로 즐기려면 주제 성구와 그 문맥을 잘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판대의 다윈: 지적 설계 논쟁(가치)'과 '진리의 썰기를 바다(좋은 씨앗)', '위기에 처한 이성(IVP)' 등을 쓴 법학교수 필립 E. 존슨은 "우리가 위협을 무릅쓰고 선교 현장으로 파송되든, 건전하지 못한 철학에 대항하여 싸우든, 아니면 일련의 계단을 올라가기 위해 분투하든, 일상의 전투에서 승리하는 비결을 배울 필요가 있다"며 "시공을 초월해 전해지는 챔버스의 단어 하나하나가 이 비밀을 상기시키고, 이 '스테디 가이드'는 이 심오한 진리를 더욱 증폭시킨다"고 추천했다.

이대웅 기자

**최첨단 3D 전신 스캔 검사**

다나병원의 3D 전신 스캔 종합검사는 신체내 투입이나 통증없이 신속·정확하며 과학적인 방법으로 뇌, 심장, 혈관, 간, 위, 척추 등 전신의 건강 상태 뿐만 아니라 위험 요소들을 미리 측정하여 예방도 가능하게 하는, 임팩이 경험하지 못한 전신기능의 검사를 합니다.

**유전자 생약치료** 200여개의 유전자를 분석하여 질병위험과 전반적인 건강상태 상담, BAM(bio active molecule; 생리활성물질)로 치료를 합니다.

**다나병원** 다나병원은 Well-Being과 Aging Care를 목표로 통합의학을 지향합니다.  
621 S.Virgil Ave. #252, Los Angeles, CA 90005/ T.213.487.0691

**심성통운 SAMSUNG SHIPPING**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저희 "심성통운"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한번 클릭으로 이사의 모든 것을 해결 [www.samsungmoving.com](http://www.samsungmoving.com)

**문료 1-877-580-2424 사우스 (310) 538-3333 LA (323) 582-2424 OC (714) 777-7799**

SAMSUNG SHIPPING, INC.  
samsungmoving@gmail.com

- 주정부 허가: MTR-190586
- US - DOT: 1847208 ICC - MC: 669029
- Fully Insured & Bonded

**이사의 명가(名家) 가주 삼성 통운(주)**

**귀국이사**

- 집안 내에서 손님 입회하에 한국식 포장 서비스
- 포장 재료 무료 제공
- 한국에서 완벽한 가구 set up 과 쓰레기 수거
- 귀국자동차 운송
- 새 물품 구입 시 Sales tax return 혜택
- 무료 참고 보관 2개월 서비스

**시내이사**

- 한국식 포장 이사 전문 (한국인)
- 피아노, 돌 침대 취급 전문
- 포장 box 대여 및 판매
- 사무실, 공장 이사
- 참고 보관 가능
- 무료 참고 보관 1개월 서비스
- 미국 내 전지역 정기 운행
- 샌프란 시스코, 베가스, 피닉스 당일 출발
- 싸애틀, 달라스, 아틀란타, 뉴저지 월2-3회 정기 운행

**자동차운송**

- 미 전지역 모든 승용차 운송 (7~10일 소요)
- 한국 및 동남아 자동차 운송 전문
- 초 저가 차량 운송

**해외이사**

- 하와이, 괌, 알라스카
- 중국, 일본, 남미
- 캐나다(밴쿠버, 토론토)
- 전 세계 선교사 이사 화물 전문



#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Classified AD



## Family 자동차 \$중고차 최고가 매입\$

새차 맞춤 리스 중고차 매매 "기본 \$700 더 드립니다."

213.453.5900 714.743.1000

933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familyauto.us



## 100% 천연성분 식후 혈당 상승 억제,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기능이 강화된 PRO-Z GOLD

### 당뇨! 당뇨는 원인치료가 해답입니다!

40년간 Zinc Metabolism을 연구해온 송문기박사는 아연이 근육세포의 당대사와 핵산 배타세포의 인슐린 반응도에 깊게 관여 되는 사실에 주목하여, 아연에 CHP를 첨가한 신형성 물질(ChP Plus Zinc) 프로지(Pro-Z)를 개발했습니다. 정부 연방 병원인 US VA Hospital에서 47명의 당뇨환자를 대상으로 12주동안 프로지(Pro-Z)를 복용한 결과 당화혈색소(HbA1c)가 평균 22% 감소, 70% 환자에서 혈당 수치가 29% 개선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Source: Metabolism, Vol 47, No 1 (January), 1998: pp 39-43 미국특허 # 5,411,748 and #5,997,908

213.434.1170

www.prozusa.com / prozusa1@gmail.com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재미과학자 송문기 박사  
-한국인 최초로 미 정부 지원으로 당뇨신약개발, 원 FDA임상 2차 실험진행  
-전 UCLA 의과대학 연구교수  
-미·제향균인병원 수석연구원  
-세계 3대 인명사전 'Marquis Who's Who' 등재

1병 \$89 3병 \$249 6병 \$474  
+tax +tax +tax

##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 전문

(213) 342-7776 월서+킹슬리

## 법률 문제로 답답한 가슴을!!!

공인 법무사(CERTIFIED L.D.A & PARALEGAL #227 / BOND 57858F1090)인  
제가 속 시원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변호사한테 가시기전에 "꼭 먼저" 만나 보아야 할 사람입니다!

퇴거, 파산, 이혼, 이민, 민사소송  
기타 각종 법정 서류 작성

714-667-0728 (영어) 2112 N. MAIN ST. #290, SANTA ANA  
213-487-0728 (영어) 1543 W. OLYMPIC BL. #422, LA

## 주님미디어닷컴 전도용품 및 배너 할인행사

오픈 기념  
CD Printing \* Papersize=\$300  
완성배너 스탠드포함 \$65 (물티슈를 제외한 전 품목 Free Shipping!!!)

미디어선교에 앞장서는 미디어에서 귀 교회와 성도님들의 사역과 사업을 더욱 효과적으로 성기 위해 기독교 전문 온라인 쇼핑몰인 주님미디어닷컴을 새롭게 오픈하였습니다. 보다 편리한 구매와 저렴한 가격, 세련된 디자인으로 귀 교회와 성도님들께서 성기하는 사역과 사업을 성기도록 하였습니다.

junimedia@gmail.com  
Call : 323.265.0244

CD, DVD 제작완료, 각종 인쇄, 현수막, 각종 사인(상세화자, 계약, 약속공인내 전문)  
주님미디어닷컴은 주님미디어닷컴의 모든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며, 주님미디어닷컴의 모든 제품은 주님미디어닷컴의 전문 제작업체에서 제작되었습니다.

## 전도용품 준비를 위한 전도용품, 새가족 선물용시디앨범을

맞춤형으로 제작해 드립니다.

1. 전도용품 세팅 **맞춤형으로 제작해 드립니다.**
2. 전도용 실교시디 **소량도 제작가능합니다!**
3. 새가족 및 방문지 선물을 위한, 실교시디앨범
4. 각종 배너 **모든 사이즈 제작 가능!!!**
5. 완성배너 (스탠드 포함 \$65) **Free Shipping!!!**

전도용품 세트 \$1,000set (\$180)  
교과용 실교시디 15set에 10매가 들어 있습니다.

각종 행사용 및 전도용품, 선물용을 준비하여 드립니다. 행사시에도 방문하시어 더욱 다양한 상품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 BOOK BINDING DIGITAL PRINTING BANNER / BOARD FLYER / BROCHURES BUSINESS CARDS BOOKLETS

### 책자제본 디지털 인쇄전문

EXCELPRINTING 213.383.7733  
2500 W. 8th St. #101, 101 Los Angeles, CA 90057

## TOGO & 캐더링 원형 머글레 싸갈레

연말연시 동행회 및 단체모임, 교회행사, 기독교모임 캐더링·도식라

월 불어국 돈가스 오징어볶음 새우볶음밥 해물수제비 \$7.99

화 타불고기 콩차구이 오리라이스 떡만두국 우거지잡채

수 동태찌개 함박스테이크 피디리빙 카레라이스 유부+우동

목 김치탕 제육볶음 자반조림 소고기볶음밥 오일백반

금 궁치김치 떡볶구이 민어구이 김치볶음밥 오징어찌개

토 부대찌개 김치구이 돈가스 치킨데리아끼 김밥+우동

323.660.1004 (천사) 4429 W. Beverly Blvd. LA CA 90004  
213-598-5552

주일은 쉽니다. 타운내 신속배달 (2인분 이상)

##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귀국· 시내· 타주이사· 차량운송

한국식 포장이사도 해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전화 877-580-2424 310-538-3333

18118 S. Broadway st #B Gardena, CA90248 www.easy2424.com

##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T.213.386.5858

직접재단/직접재봉/남녀맞춤/명품 옷수선

Master Tailor 김병호

975 S.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 Hair News Salon -헤어뉴스살롱-

Hanna(헤나)  
Tel. 213-383-5916  
Cell. 213-604-2118

3450 W. 6th St. #107-A, LA, CA 90020 (Kenmore & 6th)

## A-1 정비 오일 교환

엔진 & 미션 전문

76 오일사용

\$23.99 \*tax 6cyl.  
\$18.99 \*tax 4cyl.  
\$28.99 \*tax 8cyl. (Carbon Filter Extra)

10% 할인

Tel. 323.737.2922 Trans (323)731-0613 Engine (323)752-2971

## 헤어컷 특강

미용을 배워 선교하는데 사용하실 분들을 위해 특강을 엮니다.

- 대상: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사용하실 분 (현재프로 미용인도 OK)
- 회비: 월 \$10
- 강사경력: 전 국가대표 선수권자
- 문의: 213.392.2323

## 한방생리대 도.소매 G. Together Inc.

- 인삼생리대
- 익모초생리대
- 한방생리대

Edward Kim 김인태, CEO  
213-392-2323 (Korean) 213-500-5896 (English)  
3544 W. 3rd St. Los Angeles, CA 90020 / G\_Together\_Inc@yahoo.com

## 베데스다 의료 봉사센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의료혜택을 못받는 분들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치과와 양, 한방등의 진료의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문의전화 213-384-7078

## 쇼스피드 다이어트 치아미백

잇몸 시큰거림 풍치예방

3달분 \$60

배 빠는 속변약! 먹으면서 체중을 줄이고, 몸 전체에 부종이 빠지는 약

한달 \$50

하머니크림 (습윤크림)

- 임신 중 트살 방지
- 건선으로 인한 붉은 주름(얼굴, 목)
- 트고 갈라진 피부 보습(발 뒷꿈치)
- 치질(항문하혈, 통증)
- 독소제거
- 갑상선, 당뇨병, 정력제
- 불임증(자궁축, 하혈)
- 우울증
- 관절염
- 원형탈모
- 구연산 캡슐

영선한의원 Young Sun Acupuncture & Herbs Clinic 한국어: 213.380.7800 각종보험취급 LA MEDICAL CENTER 3663 W 6th St. #308 Los Angeles CA 90020(6가와 아드모어) 영어: 213.380.6868 (오바마 케어 포함) 영업시간 : 월~금:10시~5시/ 토 10시~2시

## win HYUNDAI CARSON 원현대 칼슨 HYUNDAI

### 2015 현대 소나타/엘란트라 리스스페셜 0% APR, No Payments for 90 Days!

Sonata 98\$/Month(3 Yrs.) Elantra 88\$/Month(3 Yrs.)

2015 Hyundai Sonata & 2015 Hyundai Elantra

현대차를 원하시는 당신께 최고의 가격을 제공하겠습니다!!

www.winhyundaicarson.com  
한인타운에서 15분에서 20분거리  
브로커 환영

주말에도 오픈합니다.  
2201 East 223rd St. Carson, 90801

유학생, 상사 주재원 도와드립니다. Bad Credit, No Credit 연락주세요. 미 서부지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딜러



## Four Months Later, Efforts to Secure Rev. Hyeon Soo Lim's Release Continue

BY JUNHYEONG KIM,  
TRANSLATED BY RACHAEL LEE

Efforts to secure the release of Reverend Hyeon Soo Lim, with whom close family and friends have lost contact since January 31, have been ongoing.

Recently, Reverend Jason Noh -- who is to take on the senior pastor position at Light Presbyterian Church after Lim -- said that he spoke with Stockwell Day, Canada's former Minister of International Trade regarding Lim's situation. Noh added that he visited South Korea and spoke with Reverend Young Hoon Lee, the senior pastor of Yoido Full Gospel Church; Justin Suh, the CEO of Compassion Korea; and Ha Joong Kim, the former Minister of Uni-

fication in South Korea, among others.

"I was able to meet many of South Korea's influential pastors, leaders of ministries, and individuals who have been a part of ministry in North Korea, and sought ways to help Reverend Lim with them," said Noh in a report from his visit to Korea released on May 31. Noh added that he met with former South Korean President Dae-jung Kim's wife Hui-ho Lee at Changchun Methodist Church.

"We can't fully understand at this moment what God's will is, but we have great expectations as we look toward the One who will definitely work through our pastor and our church," Noh said. "We believe that as we continue to gather our hearts and hold on in prayer, we will soon

experience amazing things and see God's will revealed."

Light Presbyterian Church's leaders also met with Canadian consuls in South Korea to discuss Lim's current situation.

"A report from Canada stated that the Canadian government has been in direct contact with North Korea on behalf of Rev. Hyeon Soo Lim," reported Voice of America (VOA)'s Korean publication on June 6. "Canada does not have an embassy within North Korea, but has been in touch with the Swedish government, which has an ambassador in Pyongyang, to call for Lim's release. However, it has been reported that direct contact between the two countries occurred after the North Korean government expressed that it desires to

speaking directly with Canada."

"Canadian government officials say that they are using this space to actively work for Lim's release, but said that they cannot provide specific information due to the confidential nature of the talks," VOA further reported.

The Korean Presbyterian Church Abroad (KPCA) -- of which Light Presbyterian Church is a member -- is also known to have sent an official letter to the North Korean ambassador in the United Nations in March under the name of Reverend Jin Goul Roh, the president of the KPCA at the time of the letter. After describing Reverend Lim's service in North Korea, the letter states, "We deeply regret that this [Lim's detainment] has happened, and we ask that the North Korean

government make favorable arrangements as we are particularly concerned about Reverend Lim's health."

"Lim's detainment will have a negative effect on the potential opportunities for humanitarian aid in North Korea, and the humanitarian aid organizations all over the world will be paying close attention for Lim's release while he is detained," the letter continues.

Meanwhile, Light Presbyterian Church decided last October to have Rev. Jason Noh as the succeeding senior pastor once Rev. Lim retires, and only needed the permission of its presbytery to complete the process in spring of 2015. However, Lim's detainment occurred suddenly before the completion of the process.



Students at Hobart Elementary School received shoes on June 3 from Youth Hope Summit. (Photo courtesy of Youth Hope Summit)

## Empowering Youth, One Pair of Shoes at a Time

BY IRENE LEE

Amy Jang, the president of the non-profit organization 'Youth Hope Summit,' hosted an event on June 3 in which pairs of sneakers were given to 155 students of low-income families in the "LA's BEST" program, an after school enrichment program at Hobart Elementary School in Los Angeles. The week prior, Youth Hope Summit also donated shoes to 17 students at Golden Hill Elementary School in Fullerton, CA.

Jang is a freshman at Troy High School, located in Fullerton, and a member of Thanksgiving Church in Buena Park. Alex Yu, the director of Youth Hope Summit who also serves at Thanksgiving Church, and Jang's family were also present at the June 3 event.

Scott Park, the CEO of 'Happy Teresa Footwear,' also personally delivered the shoes and helped distribute them during the event.

The eyes of the students were sparkling throughout the event, and the students -- who filled up the indoor auditorium of Hobart Elementary School -- cheered with excitement every time a name was called. Students enthusiastically ran up to receive their shoes.

Jang shared that one event that led to the founding of Youth Hope Summit was learning that Malala Yousafzai received a Nobel Peace Prize. With the help of many adults, Jang established the organization and raised funds to provide shoes for students in difficult circumstances.

For more information, visit [www.youthhopesummit.org](http://www.youthhopesummit.org).

## Dancers "Rise Up" to Worship Showcase Features Nine Worship Teams

BY JOOHEON LEE

On June 6, Kumran United Methodist Church in Gardena, California hosted "Rise Up," a Christian dance showcase during which multiple Christian dance groups gathered together to perform and show that dancing is an expression of worship to God. This is the third year that the church has hosted this dance showcase event.

The event featured dance performances from: Kumran Kids, Seeds of Worship Juniors, Kumran Youth Ministry (KYM) Dance Team, Seeds of Worship, God's Image LA, Impact, Canons, Sodium Dance Company, and V3 Dance. Two of the performances (Kumran Kids and KYM Dance Team) comprised of dancers from the church, which started three years ago as the church hosted its first Rise Up event. Other performance teams were separately organized parachurch dance ministries.

"When I came to this church and as I got to know the students, God gave me the heart for dance ministry," said Pastor Einston Han, the youth pastor at Kumran United Methodist Church, explaining how Rise Up originally began. "I wanted my students to practice dancing and use it for the glory of God."

"God has placed dancing in the heart of many Christians. I wanted to see how many Christian teams were out there when we originally started the event. Through this event, I hope to revive the art of dancing for the glory of God and make an impact in the world through dancing," he said about the purpose of Rise Up. "I want to reach every age group in the church and see the church unite to worship in a unique way."

On the question of how dancing can be used as a form of worship and of witness, Han answered, "Worship is whatever actions we do as a believer of God. Whatever movements the dance team is doing, it is doing it all for God. Also, I want non-Christians to see the dance and see that we are dancing with purpose and joy. I want

to start conversations about Christ through dance."

Over the span of two hours, these nine teams performed either with the intention to bring worship to God or to bring the message of the gospel to the audience. The dance performances spoke of Christian narratives through bodily movements and edified the believers as they saw that dancing as an art could be a creative way to glorify God.

Eddie Moon, the team leader of V3 Dance, shared similar sentiments as Han regarding dance as a form of art to bring glory to God.

"V3 Dance started as a Christian dance team in midst of the competitive dancing world where the Christian message is so rare to find. We, as a team, want to be the hope for the upcoming dance teams that consist of Christian members," he said.

Moon also stated how they practically try to be worshippers and witnesses in the culture of dancing. "We only use Christian music that point to God and not secular music that glorify other worldly things. We are selective with our members -- we want the members of this team to know the gospel and represent Christ and V3 with our lives. We point back to God in everything we do or else it is meaningless."

Those who attended the event responded positively, and one attendee said that worship was "ongoing through the event."

"It was heartwarming to see everyone, believers and non-believers, gathered and enjoying the show altogether," said one attendee. "And worship wasn't just ritualistic, but it was ongoing through the event, even when we weren't actually singing along with the band," she continued. "When we were watching every team, one by one, performing on stage, people were worshipping."

Some 270 people were present at Rise Up to share in the time of worship of God through dance and music. The committee is expecting to hold another event for next year.

## Interviews with Asian American Church Pastors, IX: Different Callings, Reaching Different People



Pastor Steve Chang is the senior pastor of Living Hope Community Church.

BY RACHAEL LEE

Pastor Steve Chang is the lead pastor of Living Hope Community Church, an independent church in Brea, CA with a large Korean-American and Asian-American attendance. Though many believe that an independent church is the ideal model for Korean Americans, Chang believes that there is no one "best" model, and that each kind of ministry simply serves different callings and reaches different kinds of people.

This is especially important when consider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Korean ministries (KM) and English ministries (EM) in Korean immigrant churches, he said. Chang, who has had experience serving in the Korean immigrant church context prior to pastoring at Living Hope, said that the key to understanding the issues that may arise between the two ministries is the fact that they serve two divergent purposes and callings.

"Why does a Korean church exist in America? It has a completely valid reason to exist -- to reach the Korean immigrant people that an American church cannot reach. The goal of the Korean-speaking church is to reach Korean speakers, and anything that hinders that detracts from the church fulfilling its primary goal."

"Then what is the purpose of an EM?" he then asked.

Chang went on to explain that most pastors who go into serving English ministries at Korean churches will go in with the calling to serve an English-speaking, Korean American congregation, and to do it with excellence. The EM pastor also believes that if he is successful, the EM will be able to reach the multi-ethnic community.

Though that may also be the outspoken intention of the senior KM pastor in hiring the EM pastor as well, subconsciously, there may be an underlying assumption that the EM actually exists to primarily support the overarching purpose of the Korean immigrant church -- to reach and minister to Korean immigrants. Thus, the EM pastor is expected to be an assistant to the direction of the KM, and not an independent directional leader, Chang said.

Hence, once the EM thrives in such a way that it may hinder the KM, then it may start to hinder the Korean church's overarching purpose to reach Korean-speaking immigrants.

"Both KM and EM pastors are trying to be true to their calling, and to do so excellently, and the more they are successful, the greater the likelihood that they will diverge from each other," he explained.

"And when you have two diverging purposes, there are bound to be problems, no matter how well-intentioned the people may be. They're just different in what they believe their calling to be. I think it's vastly unfair to attribute it to sin or selfishness."

Does that mean EMs should be gotten rid of in immigrant churches? Definitely not, Chang said.

"Until children leave home, I believe the family and the church of that family have a responsibility to reach and minister to the children," he explained.

"So the EM is still very necessary for Korean churches in order for the next generation to transition into adulthood. But is it possible

to maintain a vibrant EM in the long run into adulthood? I think it'll take a great deal of humility and active adjustment in order to maintain a healthy KM-EM cooperation."

He went on to explain that in about 15 to 20 years, Korean immigrant churches will see a phenomenon in which English-speaking, Korean American pastors will come of age, and will be able to "go toe to toe with a Korean speaking elder board," but right now, that's not possible in most Korean immigrant churches. At that point in time, Korean churches can decide whether the Korean or the English speaking congregation will set direction and purpose, Chang said.

Another possibility is that as the children of Korean-speaking parents grow in the English ministries of Korean-speaking churches, they can transition out into Korean American independent churches as they approach adulthood.

However, Chang emphasized that it's important not to denigrate other ministries. He said that there are specific people that EMs under Korean churches are able to reach, that independent churches are able to reach, and that multi-ethnic churches are able to reach. Each ministry and church simply have different callings, and reach different people.

"So you can't blame a Korean immigrant church for not being effective with the Spanish-speakers in their neighborhood, because that's not their primary purpose or primary giftedness," Chang added. "It would be akin to blaming the Spanish-speaking church for not having a Korean-speaking service. We also have to be careful of idolizing multi-culturalism, and from denigrating others' ministries."

"Churches shouldn't be discouraged by their weaknesses, but be encouraged by their strengths."

*This is one in a series of interviews with pastors who either serve in English ministry (EM) or have a heart for intergenerational relationships within the Asian American church.*



KOBE PEARL LAS VEGAS

진주전문회사 고베펄이 펼치는 지상최대의 진주보석쇼

# 불황타개 긴급제안!!!

# 현금회전 원가파괴

# 초대박세일!!!

2줄, 3줄  
진주목걸이  
한정 대세일

2015년  
기획상품

홍산호, 에메랄드, 루비, 자수정등  
100여가지 이상의 다양한 디자인

유색 롱비드 2줄 진주목걸이

reg. \$2999 ▶ \$1299

**\$599** 부터

합성 유색보석과 천연양식진주 제품입니다.

## 명품 아코야진주 초대박세일!!!

Helen Aiko

아코야진주 1줄 목걸이  
(6~6.5mm)

\$1599 > \$799 > **\$499** 부터

아코야진주 2줄 목걸이  
(6~6.5mm)

\$2599 > \$1599 > **\$999** 부터

### 천연 양식 해수진주, 남양진주, 아코야진주 전시 특가 판매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한국의 세공기술과 진주메카인 일본공법으로 제작된 화려하면서도 단아한 디자인의 신제품 진주 보석류 전시 특가판매. 경제적인 가격대의 화려한 천연양식진주 부터 최고급 품질의 아코야, 남양진주, 타히티 흑진주등 3000여점의 제품을 진주전문업체 고베펄에서 특별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 2015년 신제품 펜던트, 브로치등 초대박세일!!!

**\$99** 부터

## JEWELMAT

진주보석 전문회사 고베펄에서 2년여의 각별한 준비  
온열과 자수정보석이 함께한 고베 주얼 매트 탄생!

잠만 자도 저절로 병이 힐링되는 잠자리, 자수정 '고베주얼매트'  
고베주얼매트가 힐링 자수정 매트로 입소문 나 인기폭발!

고베주얼매트 KOBHEALING MAT PRO  
프로페셔널 SIZE: 700x1880cm  
WEIGHT: 15kg **\$1999**

고베주얼매트 KOBHEALING MAT SINGLE  
싱글 사이즈 SIZE: 1000X2000cm  
WEIGHT: 17.7kg **\$2799**

고베주얼매트 KOBHEALING MAT QUEEN  
더블 사이즈 SIZE: 1500X2000cm  
WEIGHT: 30kg **\$3499**



KOBE PEARL LAS VEGAS

고베펄 진주보석쇼 행사일정 안내

문의 전화 213.590.5283

영업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영업합니다.



#### 가든그로브 Garden Grove

일정: 2015년 6월 7일 일요일, 단 하루  
장소: 라마다플라자 Ramada Plaza 2층 퍼시픽룸  
10022 Garden Grove Blvd., Garden Grove, CA. 92844

#### 다이아몬드 바 Diamond Bar

일정: 2015년 6월 9일 화요일, 단 하루  
홀리데이인 Holiday Inn Diamond Bar 1층 Gateway 2 & 4  
21725 E. Gateway Center Dr. Diamond Bar, CA 91765

#### 엘에이 한인타운 Los Angeles 1

2015년 6월 10일 (수) 부터 12일 (금) 까지 (3일간)  
월셔 아로마센터 Aroma Wilshire Center - 5층  
3680 Wilshire Boulevard, Los Angeles, CA 90010

#### 엘에이 한인타운 Los Angeles 2

2015년 6월 13일 (토) 부터 14일 (일)까지 (2일간)  
로텍스호텔 Rotex Hotel - 2층 "Banquet Hall"  
3411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19